

觀光釜山

Busan Tourism News

Vol. 13
2012. June

광안리해수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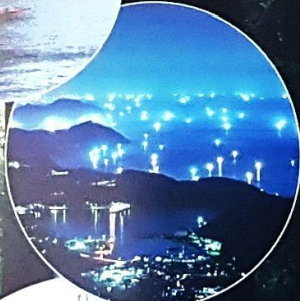
부산지역 해운대, 광안리, 송도, 송정해수욕장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개장된다.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부산에서 49.5km거리의 쓰시마.
교통편이 늘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쓰시마의 청정자연으로 놀러오세요!



쓰시마로 가는 교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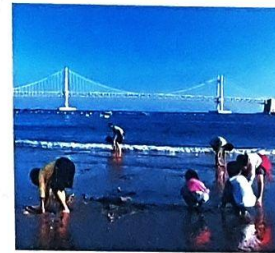
- 1. 배편** 대아고속해운 (TEL. 1644-9604)
: 부산항 09:50 출발/1일1회 매일 운항(화요일 제외)
미래고속해운 (TEL. 1599-0255)
: 부산항 08:00 출발/1일1회 매일 운항
JR큐슈고속선 (TEL. 051-469-0778)
: 부산항 9:00 출발/1일1회 매일 운항
- 2. 비행기편**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 (1588-2682)
: 김포공항 09:50 출발 / 1일1회 운항(월,수,금,토,일)

쓰시마부산사무소

부산시 중구 대청로 124번지 창국빌딩6층
TEL. 051-254-9205 FAX. 051-254-9206
<http://www.tsushima-busa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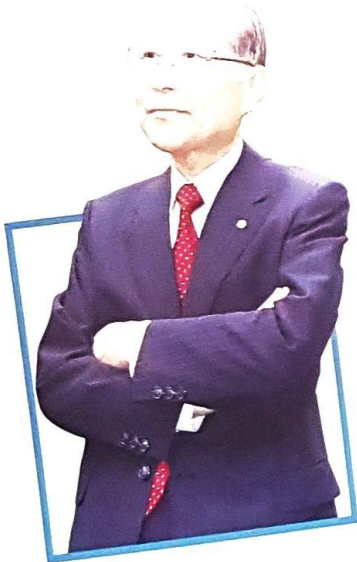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이근후
편집위원 손해식, 이명규, 김종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희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이민지 객원기자)
발행일 2012년 5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리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569-2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시 동광동4가 18-8번지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tj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amoon.kr>

- 04 인물포커스 / 부산시 관광협회 고광철 명예회장
- 06 기쿠치시 모니터 투어
- 08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
- 09 부산 국내외 관광객 및 의료관광객 유치
- 10 부산시 관광진흥계획
- 11 스토리텔링 자원발굴 추진,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준공
- 12 부산~중국 낙안간 전세기 운항
- 13 영도에 소형 독도 인공섬 조성
- 14 부산 갈맷길 특집
- 16 부산 시티투어
- 18 슬로시티 관광명소, 금정산 둘레길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 19 낙동강 여가공간 및 일몰추천
- 20 국내 최대 규모 '부산중앙광장(가칭)' 조성 본격화
- 21 용두산 공원 이모저모
- 22 세계 최고 해양축제 2012 여수세계박람회
- 24 광안대교 등 해안순환 교량, '세계 명품 관광자원화' 추진
- 25 진해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제17회 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 26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 경쟁, 해운대해수욕장 모래축제
- 27 원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예술문화 축전마련
- 28 광안리 아쿠아펠리스 & 리조트 특급호텔
- 29 호텔 파라곤 부산
- 30 釜山의 숙박시설
- 31 5, 6월 외국인 관광객이 15만명.., 관광코스 개발
- 32 관광업계 자력증의 세계
- 34 관광 관련 업체의 인재 양성 현주소
- 35 대마도 특집 <한일교류사 기념비를 생각하며...>
- 38 관광칼럼 / 중국인 관광객, 부산 방문 觀光客 觀光客
- 39 문화칼럼 / 애 부산요(釜山藥)
- 40 관광칼럼 / 연합과 연계 - 부산과 동남권의 관광산업



표지 _ 광안리해수욕장

부산시 관광협회 고광철 명예회장 일본정부 훈장 옥일쌍광장(旭日雙光章) 서훈(敍勳) 수장(受章)!



고광철 명예회장은 일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진정 한일양국의 화합과 선린우호(善隣友好)라는
나름대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관광교류(민
간교류)뿐이라는 것을 신조로 삼고 한평생을
오직 관광에만 전념해 왔다.

지난 4월 29일 일본정부의 춘계서훈수장(春季敍勳受章)자 발표에 의하
면 외국인 수장자(26개국 47명 수장) 중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부산시
관광협회 고광철 명예회장이 선정됐다.

사유는 '한일양국간의 관광을 통한 민간교류 및 상호이해 촉진에 기여
한 공적'으로 旭日雙光章(Emperor's Order of Rising sun, Gold and
silver Rays)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일본정부의 옥일쌍광장 서훈 수장자 고광철 부산관광협회 명예회
장은 1962년 한국 최초로 설립된 경상남도 관광협회의 외국인 관광 안내
소 소장으로서 참여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50여년간 부산시 관광협회
의 운영부장, 사무국장, 전무이사(18년)를 거쳐 선출직인 관광협회장(2기
6년)직을 수행하면서 한일간 관광을 통한 민간외교 및 상호 이해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공적을 남겼다.



旭日雙光章

- 일본의 주요도시 (후쿠오카, 나가사키, 가고시마, 오사카, 나고야, 시모노세키)의 관광연맹, 관광협회와 부산관광협회간에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관광교류 확대를 위하여 가교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한일국교가 정상화 된지 불과 1년후인 1966년 10월에 후쿠오카 관광협회와 부산시 관광협회간의 자매결연을 맺은 일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간 단체로는 최초의 일로서 한일양국의 우호 증진과 상호이해 및 화평을 위하여 선각자적인 역할을 했다.
- 한일 상호관광교류전을 매년 각 도시를 순방하면서 개최하고 왜국 된 역사인식을 바로잡는 한편 민간인 교류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 후쿠오카시 및 후쿠오카시 관광협회와 부산시 및 부산시 관광협회 가 공동으로 양국의 수도(동경, 서울)를 비롯하여 중국의 북경, 상해 그리고 대만의 수도 대북 등지에서 관광객 유치홍보행사를 개최하고 발전하는 데 헌신했다.
- 1993년 일본 도야마(富山縣) 관광연맹의 초청강연, 1994년 일본 관광협회의 초청강연, 2002년 나가사키현 내 중학교 교감협의회 초청강연, 후쿠오카 컨벤션 뷰로와 나가사키현 호슈학교(芳洲塾) 초청 강연 과 구마모토현 내 시장협의회 초청 강연, 한일 양국이 개최하는 국제 관광포럼 및 기조 강연 등을 통하여 우호친선에 크게 기여했다.
- 민간단체인 큐슈(九州)지역 관광진흥회(큐슈의 6개현 관광사업자 참여)와 부산시 관광협회가 공동으로 기획 주최(상호격년제로 후쿠오

- 카시, 부산시, 나가사키현 하우스텐보스 및 경주한 행사는 한일 양국의 관광교류확대에 괄목한만한 업적으로 기록 돼 고광철 명예회장의 기획, 집행능력이 지금까지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의 한일간 행정 기관 자매도시 기교 역할로는 부산 영도구청, 울주군-나가사키현 대마도시와 자매결연을 성사시켰고 전남 강진군-나가사키현과 자매결연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 회장직을 물러난 뒤에도 청자 도예지로 이름난 전남 강진군과 하사미(佐見町)와 자매결연을 맺는데 산파역을 했으며, 도자기술을 통한 민간간의 기술교류에 공헌하는 한편 나가사키현 온젠시(長埗温泉市) 로타리 클럽과 부산 동백로타리 클럽간의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도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최근 JR 고속선 주식회사로 하여금 부산-쓰시마시 기미쓰시마(對馬島 上對馬町)간 정기항공 개설에도 일조했다.
- 이번에 옥일쌍광장을 수상하게된 고광철 명예회장은 "이 상은 개인에게 준것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묵묵히 한일관광교류에 힘써온 관광인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 생각하고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한다.
- 그는 앞으로 부산의 상징적인 관광인이 아니라 세계적인 상징적 존재로 영원히 우리들에게 각인될 것이다.

김봉오 bjbusan@hanmail.net

주요경력

- 부산시 관광협회 설립기여, 45년간 근속
- 부산시 관광협회 전무이사 보임 후 18년 역임
- 부산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2005 APEC 추진위원회 위원 역임
- 부산시 관광협회 제19~20대 회장역임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이사, 부회장 역임
- 부산시 한일친선협회 부회장
- (주)서천양행 J여행사 설립, 회장(CEO), (현재)
- 부산시 관광협회 명예회장(현재)

상훈

- 대한민국 동탑산업훈장 수상(관광진흥 공로부분)
- 일본국 나가사키시 국제친선 명예증 수상
- 일본국 외무대신 표창장 수상
- 일본국 시모노세키시 국제명예시민권 증수
- 2008 한일관광교류의해 기념식전에서 일본 관광대상 수상

겸직(현재)

- 부산시 관광협회 명예회장
-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총대표

드넓게 펼쳐진 자연!

그리고 아소(阿蘇)산 화산에서 사계절 천연 源泉水가 흘러내리는 구마모토(熊本)현에 위치한 온천 전원도시 기쿠치(菊池)시에서 부산시 관광협회, 언론사, 여행사 초청 모니터 투어 동행기!



봄기운이 하루가 다르게 색을 갈아입는 지난달 하순, 세속화 되어가는 썩든 현실이 슬막하게 가슴이 답답해 여행갈 처분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 관광협회로부터 연락이 왔다.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기쿠치(菊池)시에 2박3일간 언론사, 여행사 팸투어에 참석 할 의향이 있는나라는 전화를 받고 동행했다.

3월 28일 10:00시 이근후 부산시 관광협회장을 비롯, 언론사 6명, 울산 시청, 울산 상공회의소 2명, 토마토재판 홍성부 소장, 여행사 직원 등 33명이 탄 배(코비)가 미끄러지듯 부산항 국제 여객부두를 빠져 나가자 바다는 잔잔하고 하늘 또한 푸르다.

3시간후 배가 히타타항(博多港)에 도착, 기쿠치시를 향한다. 그것에서 기다리고 있던 고공철 명예회장이 환영했다.

차창밖으로는 부산에는 아직 피지도 않은 벚꽃, 유채꽃, 목련꽃 등이 활짝피고 방문객을 맞는다. 넓은 들판에는 농부들이 논밭갈이에 한창이고 곳곳에는 크고 작은 여관건판에는 한결같이 온천(湯)표시가 돼 있어 여기가 온천지역임을 말해준다.

1시간 30분후 기쿠치 시청에 도착, 청사 입구에는 후쿠무라 미쓰오(福村三男)시장을 비롯, 관련 직원들이 어서오세요 기쿠치시에 라는 프랑

기쿠치시(菊池市, きくちし)는 구마모토 현의 북부에 위치한 시이다. 2005년 3월 22일, 기쿠치 시와 기쿠치 군 시치조 정((城下町)·시스이 정(泗水町)·교쿠시 촌(旭志村)이 통합해서 생겨났다. 인구는 51,000여명이다. 구마모토 현의 북부를 흐르는 기쿠치 강의 상류, 구마모토 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지역 중앙부에서 남서부는 구마모토 평야의 북동단에 해당해 비옥하고 농업이 활발하며 다자이후 부관의 혈통으로 유명한 가문인 기쿠치 씨의 본거지로 와이후를 중심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다. 동부는 아소 외곽산의 서쪽 기슭 지대로 울창한 천연생 광업수로 덮여 있어 들새의 보고이다. 그 사이를 흐르는 기쿠치 강의 원류가 크고 작은 여울과 웅덩이와 폭포를 만들어 기쿠치 계곡을 이루고 있다. 기쿠치 계곡은 일본 명수 백천에도 선정되어 있고 여름이라도 평균 수온이 13도로 낮아 냉기에 감동아 피서지로서 가족 동반객 등으로 떠들썩하다. 매년 4월의 등산 휴양 이후 30~40만명의 사람이 방문하며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다. 이 일대의 국유림은 1965년에 규슈에서 처음으로 자연 휴양림으로 지정되었다. 북부는 오키타 현과 인접하고 있다.

카드를 들고 일행을 맞는다. 청사 앞에 세로로 쓴 菊池平和宣言(기쿠치평화선언문)이라는 팻말이 눈길을 끈다.

시사노야(市事野家)여관에서 개최된 교류회에서 시의회 의장 상공회 회장, 관광협회 대표이사 등 많은 내외귀빈, 그리고 기쿠치 온천관광 여관 협동조합 아마다 치오(山田千洋子)조합장(城山莊旅館 女將)의 여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무라 미쓰오(福村三男)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년 대지진을 겪은 우리나라에 많은 도움을 준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드리고 우리 기쿠치시는 우선 조용한 전원 도시로서 맑은 물이 넘쳐 흐르는 계곡, 아소화산대에 속한 양질의 풍부한 온천수와 어디에 내 놓아도 빠지지 않은 3곳의 골프장, 고대일본 기쿠치성,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아소산 화산대기 지금도 활동중이어서 국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고 말한다. 또 "우리는 부산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관광전에도 연이암 참석했고 올해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쿠치시는 부산에 없는 매력 많은 곳이므로 여러분의 제2고향으로 삼아 주시고 다시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로 인사말을 끝맺는다. 이어 이근후 부산시관광협회 사에 이어 고공철 명예회장은 건배사 도중 통역기마음을 인들자 한국어 를 일본어로, 일본어를 한국어로 1인2역 통역해 갈채를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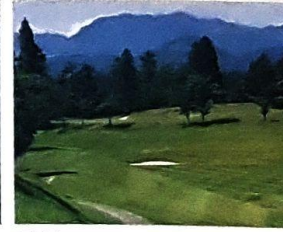


기쿠치(菊池)온천

기쿠치 온천의 가장 큰 특징은 각각의 숙박시설마다 온천의 센겐(源泉)을 보유하고 있어 인접한 장소 곳곳마다 또다른 센겐의 온천을 즐길 수 있다.



아소산 화산



골프장



풍부한 계류 아름다운 삼림의 기쿠치 계곡



기쿠치성



안중근의사 글

자연휴양림 기쿠치계곡

기쿠치시에서 동쪽으로 약 17km, 아소 외곽산 북서부의 표고 500~800m 의 사이에 펼쳐지는, 1,193ha가 "이코이노 모리(森) 기쿠치가와강의 근원을 이루는 기쿠치 계곡은 울창한 천연생 광업수로 덮여 있으며 그 사이를 누비며 흐르는 복류수(伏流水), 크고 작은 다양한 여울과 웅덩이, 폭포를 만들어, 변화가 풍부한 계류와 아름다운 삼림이 엮어내는 모습이 절경이다. 계곡은, 여름에는 천연 에어컨이라고 불리며, 평균 수온은 14도로써 낮고, 몸을 자르는 것 같은 차고 맑은 물은 피서지로서 최적이며, 가을은 계류에 비취는 단풍이 아름다우며, 봄에는 신록, 겨울철에는 온 산에 무빙(霧氷)의 꽃이 피는 등, 삼림욕에는 최적으로 꼽힌다.

아소산 화산

규슈의 상징이자 구마모토의 얼굴인 아소산은 세계 최대의 칼데라를 가진 복식 화산이다. 나카다케(中岳)·다카다케(高岳)·네고다케(根子岳)·에보시다케(烏帽子岳)로 이루어져 있어 아소고다케(阿蘇五岳)로 불린다. 일본 최초의 국립 공원으로 지정 되었으며, 현재도 나카다케는 용암을 내 뿜고 있어 웅대한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다. 아소의 폭발은 3천만 년 전부터 계속 되어 왔으며, 약 10만 년 전의 대폭발로 현재의 모습을 형성했다. 높이 1,592m, 구마모토(熊本)·오이타(大分)현(縣)에 걸쳐 있다. 세계 최대의 칼데라를 가지는 복식화산으로 아소국립공원이 주요부를 형성하며, 기리

시마(島) 화산대의 북단과 하쿠이(白川) 화산대가 미주치는 지점에 있다. 홍적세 이후 자주 열운상(熱雲)으로 분출한 아소 용암은 인산암류가 주체이다. 중앙화구구의 나기쿠(奈岐)현(縣)은 현재도 활동 중이며, 그 화구(火口) 구경이 아소산 관광의 중심이다. 교토대학(京都大学) 아소산연구소와 기상청의 아소산관측소가 설치되어 있다.

기쿠치성

기쿠치성은 7세기 후반 현재의 구마모토현 북부(이마가시, 기쿠치시)에 축조된 산성이 일본을 통치하던 아미토 조정은 백제와 우호관계에 있었으며,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멸망하자 아미토 조정은 부흥을 위한 원군을 한반도로 보냈다. 그러나 663년 백천강 전투에 패하고 망명을 원하던 백제인들을 데리고 귀국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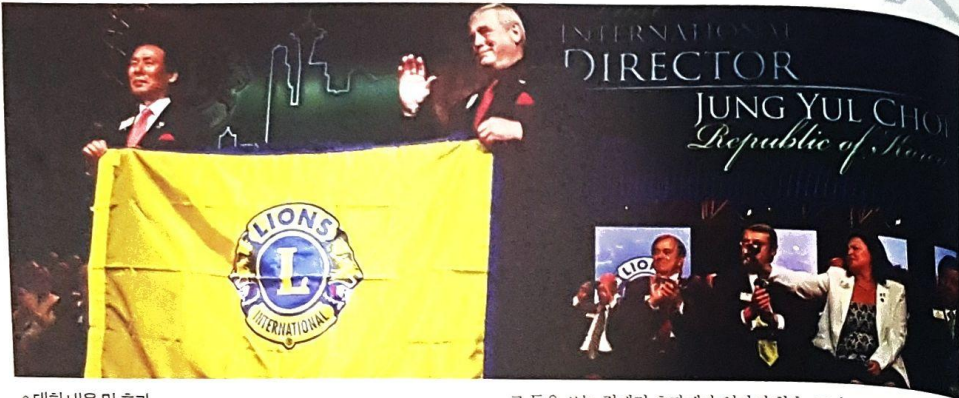
기쿠치성은 다자이후의 남쪽 약 30km, 아리아케해로 흘러가는 기쿠치강의 하구로부터 약 30m 가까이 거슬러 올라간 내륙부에 있으며, 언뜻보면 신리와 당나라의 침공 루트 상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교통의 요충지였으며, 아리아케해 연안이나 규슈 남부에 실룩한 적을 기다렸다 공격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무기나 군수 물자, 병사들 최전선에 내보내는 후방 기지로서의 역할과 함께 남쪽으로부터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 거점이었다고 추측된다.

김봉오 bjbusan@hotmail.net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 사상최대규모 개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교통&관광 대책 순조롭게 추진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민간행사 중 사상최대 규모가 될 2012 라이온스 세계대회가 오는 6월 22일~26일(5일간)까지 해운대 백스코 12관에서 개최된다. 2012 라이온스 부산 세계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중순 행사기획·행사지원 등 2개 담당에 100여명으로 발족, 현재 숙박·교통·환경정비·보안위생·관광·회의 등 11개 분야에 대한 실행 및 지원 계획을 짜고 있다.



○대회 내용 및 효과

2012 라이온스 부산세계대회가 오는 6월 22~26일 부산 해운대구 우동 백스코 등지에서 열린다. 대회준비위 최종열 위원장은 "라이온스 세계대회는 200여개국 130여만 회원이 정치·이념의 장벽을 초월한 평화를 구축하고 봉사와 협동정신으로 세계 속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현재 120여개국 4만5000여명이 대회 참가 등록을 했다. 대회준비위 측은 "120여개국 5만여명이 대회에 참가할 전망"이라며 "이 중 외국인인 1만5000여명이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산시 준비단 측은 "국제 민간 행사로는 참가자 수나 국가 수에 있어 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부산시와 대회 준비위 측은 이런 의미를 살려 부산진구 전포동 109의 1 옛 한방대 부지 9252㎡에 65억원을 들여 기념공원인 '부산 양정 라이온스공원'을 짓기로 하고 현재 공사 중이다.

대회는 ▲국제퍼레이드 ▲총회 ▲세미나 ▲국제회장·이사·지구총재 연회 등으로 이뤄진다. 23일 열리는 국제퍼레이드는 대회 참가 외국인 1만5000여명이 각자 자기 나라의 전통의상을 입고 해운대 일원 거리를 행진하는 행사. 대회준비위 측은 "평생 기억에 남을 장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준비단에 따르면 이 대회 개최로 인해 생산유발액 1746억원, 취업유발인원 4288명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부산시 준비단 최기원 지인담당관은 "대회 참가자들이 숙박·음식·쇼핑·관광 등으

로 돈을 쓰는 경제적 효과에다 일자리 창출, 그리고 120여개국에 부산을 알리는 등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세계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준비 상황

사상 최대의 민간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준비 사항도 방대하다. 라이온스협회 차원의 대회준비위원회 외에 부산시 준비단도 꾸려져 성공적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행사장. 백스코는 제2백스코와 대강당 등의 공간 확충 공사가 이 대회 전에 마무리한 계획이다. 다음은 숙박. 참가 외국인 1만5000여명이 잠잘 숙소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필요한 객실 수는 2인실 기준으로 7500실. 준비단 측은 "부산 시내 진호텔과 해운대 모텔, 그리고 힐튼 등 경주지역 호텔 1300실 등으로 목표 객실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백스코와 해운대·시면 등 시내 호텔, 김해공항과 호텔 등을 오는 대형 셔틀버스 111대를 마련하고 만나절·체험투어·유람선·야경투어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교통과 관광 대책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부산시 조성호 준비단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세계도시 부산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손해식 편집위원

부산시 "올해 260만명, 2015년까지 해외관광객 300만 명" 유치

부산시가 2015년까지 해외관광객 300만명 유치에 나선다. 또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 11개 사업에 국·시비와 민자 등 총 4천75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시는 △부산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관광 인프라 확충 △부산대표 관광상품 육성 △크루즈 및 해양관광 활성화 △국내외 관광객 유치마케팅 강화 △고품질 관광서비스 구현 △국내외 도시간 관광협력 강화 등 7대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강도에온 조성화 문화오피스로 관광 테마거리 조성,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조성, 용호씨사이드 관광지 조성

등 11개 사업에 국·시비 1천835억원, 민자 2천917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크루즈 및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국과 미국 등에서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캠퍼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광시각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3일 오전에는 시청 회의실에서 시·군·구 담당 간부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중국인관광객 유치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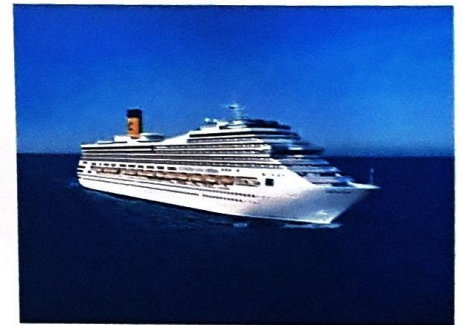
시는 올해 260만명의 해외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에는 해외관광객 300만명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산 찾는 크루즈선 이용한 국내외 관광객 급증

올 들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크루즈선을 이용해 부산으로 들어오는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올 1~3월 부산항을 찾은 국제크루즈선은 21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척에 비해 17척이나 늘어났다. 이들 크루즈선을 통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인 1만3천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천401명보다 3.9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국제크루즈선 운항이 늘어나면서 내국인 관광객도 큰 폭으로 뛰었다. 같은 기간 크루즈선을 이용해 부산을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4천2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8명보다 대폭 늘어났다. 내국인 관광객의 부산 방문 증가는 우리나라 첫 국적 국제크루즈선인 '클럽하모니'호가 지난 2월부터 운항을 시작하면서 큰 기여를 했다.

크루즈선을 이용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국적은 미국이 3천914명으로 가장 많았다. 호주 3천458명, 캐나다 1천458명, 영국 1천374명, 독일 657명, 일본 435명, 중국 134명, 기타 1천616명으로 아시아와 유럽, 미주대륙에 걸쳐 골고루 분포했다.



부산의료관광객 유치

일본·몽골·베트남까지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동남아시아와 일본지역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13~21일 베트남, 몽골, 일본 의료관광에 이진시를 초청해 '의료관광 캠퍼'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관광 캠퍼는 한국관광공사, 부산대학병원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 베트남, 몽골 의료관광 에이전시 10여명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서면 메디칼스트리트 등을 방문해 부산 의료관광 인프라를 살펴보고 해운대

신세계백화점 렌턴시티점,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 관광명소를 둘러봤다.

일본 동스데이제단 관계자 10여명도 같은코스를 방문했다. 부산시는 몽골·베트남상류층과 일본 고령층을 의료관광객 유치대상으로 정하고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사계절 명품 관광도시 만들기 위한 '관광진흥계획' 확정, 본격 시행

밤풍경, 낙동강 하구 생태, 도심 에코관광, 시티투어, 의료관광, 전통발효음식 관광... 야경, 황령산봉수대, 동백섬과 누리마루, 이기대, 중앙공원, 대대포 낙조분수 등 12곳을 야경 명소로 지정, 관광코스로 만들 계획



기장도예촌, 해양크루즈, 생태관광, 야경관광, 시티투어... 부산의 관광 인프라·콘텐츠가 보다 다양해진다. 부산시는 "부산을 사계절 명품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관광진흥계획'을 최근 확정,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기장도예촌, 부산진구 문화오름도 관광테마거리, 황령산봉수대 관광자원화,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광안리 웨일 크루즈, 동해안 탐방로, 해운대구 우동 운촌항 포트카멜리아, 해송교-송정간 관광테마거리 등의 관광인프라가 올해부터 2018년 사이 새롭게 조성된다.

현재 기반공사 중인 기장도예촌은 930억원을 들여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일원 91만8000㎡에 2018년까지 조성된다. 도예박물관, 도예언구소, 공방, 도자기 테마파크, 호텔 등이 들어선다. 부산진구 부전동 영광도시 앞 북개도로 550m 구간에 만들어질 '문화오름도 관광테마거리'는 예술과 물을 테마로 70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진행된다. 실개천, 조형물 등이 설치된다. 황령산봉수대는 오는 6월까지 진입로에 꽃길 등 공원을 만들고 전망데크와 경관조명 등을 조성해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은 59억원을 투입, 용호만매립지에 오는 연말까지 만들어진다. 웨일 크루즈는 광안리 앞바다에 테마별 체험관·극장·전해선술·식당·공연장·호텔 등을 갖춘 9000여㎡ 대형 선박을 정박시키는 것, 대략 100억원이 들 전망인데 민자로 추진 중이다. 내년 운영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을숙도에코센터-구포역간 2.8km 구간에 탐방로를 만드는 낙동강 하구 에코트레일은 3억원 들이 올해 중완료할 계획이다.

지역 관광상품들이 보다 세분화, 다양화한다. 밤풍경, 낙동강 하구 생태, 도심 에코관광, 시티투어, 의료관광, 전통발효음식 관광... 민저, 야경, 황령산봉수대, 동백섬과 누리마루, 이기대, 중앙공원, 대대포 낙조분수 등 12곳을 야경 명소로 지정, 관광코스로 만들 계획이다. 부산시 측은 이들 12개 명소에 대해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고 택시 야경관광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낙동강 하구 생태관광'은 을숙도 상·하단부에 965억원을 들여 조성 중인 생태공원인 핵심, 2016년까지 습지복원, 생태복원로, 방문자센터 등이 만들어진다.

또 사하구 감전2동 문화마을 등 르네상스 재생 사업을 통해 번신하는 산복도로 마을과 갈매길을 연계한 도심 에코관광도 상품화하고, 갯길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전통발효음식을 자원화해 관광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티투어도 보다 활성화한다. 민저 울 들어 해운대·태종대 등 기존 노선 외에 역사·문화탐방, 해동용궁사 등 2개 코스를 더 늘렸다. 역사·문화탐방 노선은 복전동 고분군·금강공원·범어사 등 동대 지역을, 해동용궁사 노선은 기장군 해동 용궁사와 송정해수욕장을 각각 포함시켰다. 부산역 출발이다. 해운대와 태종대 노선은 운해 간격을 4분에서 30분으로 줄였고 을숙도 및 야경노선 시티투어 비스는 29인승에서 42인승으로 규모를 키웠다.

2015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연간 300만명 유치를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 계획의 실행과 목표 달성은 부산의 관광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

부산시 '스토리텔링' 자원 발굴 본격추진

부산시는 사계절 명품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 자원 스토리텔링 발굴에 나선다. 지난년부터 역사·문화, 전통·유래 등 부산 지역 이야기거리 발굴을 위해 구·군과 합동으로 관광자원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운대 동백섬 최치원 동상과 인이동상, 황령산 봉수대 등 문화유적지, 수영강변 나무공원 캠퍼스 등 이야기거리가 있는 문화관광자원이 대상이다.

현재 해운대구와 사상구 등 일부 기초단체에서 대상물을 추진해 놓은 상태로 분야별 전문가와 문화관광해설사로 구성된 전문팀을 구성해 스토리 발굴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제행사 등에 대비해 스토리텔링 대상물을 영어·일어·중국어 등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스토리 북 발간과 안내 해설관 및 홍보물 정비도 할 방침이다.

시는 시범사업으로 발굴된 스토리를 부산을 대표하는 유적지나 연극 등 상시공연물로도 제작해 관광자원화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부산에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대상물이 많이 있지만 그동안 방치해놓다가 됐다"며 "사계절 명품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멋진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화·여행·스포츠 '3대 바우처' 하나로 통합

문화부는 올해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적 접근성 제고, 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 기부와 나눔 활동 연계 확대 등의 네 가지 정책을 실천하고 대상별, 분야별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분야별 바우처로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바우처', 개인과 가족 단위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바우처', 청소년의 스포츠 교육을 지원하는 '스포츠바우처', 프로 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스포츠관람바우처' 등이 있다.

문화부는 이용자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스포츠관람바우처를 제외한 문화·여행·스포츠 등 3대 바우처를 하나로 통합, 내년

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후기명식 카드발급방식을 도입해 신규 발급절차를 간소화했다. 문화바우처 카드 소지자가 무료티켓이나 할인티켓을 신청할 수 있고 영화관 입장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과 벽·오지 주민, 복지시설, 산업단지, 군부대 및 교정시설 등에 공연 관람과 도서 보급 지원도 확대하며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주 청소년 감성 증진 사업'과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캠프'도 마련된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어르신 문화학교 등 노인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청소년에 대한 신문교육(SIPE)과 오케스트라 활동, 문화소의 지역 내 초등학교에 예술교육 등을 지원한다.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준공 의료관광 최적지로 부상전망



메디컬 스트리트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등에서 선보일 3D 성형 시뮬레이션시스템을 한 직원이 설명하고 있다.

부산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가 1일 준공했다. 부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면 롯데메가시티 일대 의료기관 밀집지역을 지난 2010년부터 메디컬 스트리트로 조성하는 사업이 2년 4개월만에 결실을 맺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는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을 끝내고 1일 준공식과 제2회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를 열었다.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는 안과·치과·성형외과·피부미용 등 의료기관 17여 곳이 밀집해 있고, 면세점, 쇼핑센터까지 갖춰 의료관광의 최적지이며 명소를 자랑한다. 국·시비 25억원을 들여 조성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는 △한국투자신탁 서면점-도식점도 부암역 6번 출구입 6000㎡, 너비 5~7m △울진푸스-A+메디칼센터-성형외과-유아25건이 2500㎡, 너비 7~8m 등 2개 구간, 이곳에는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 상징조형물, 만남의 광장, 의료관광홍보안내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차도 1개 차로를 줄이고 보도를 넓혀 의료관광객들이 편리하게 거리를 거닐게 했다. 밤에도 거리를 어둡게 꾸미는 경관가로등도 설치했다.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는 이와 함께 종합 안내센터와 성형외과 등 4곳에 가상성형센터를 설치, 3D 성형 시뮬레이션시스템을 통한 가상성형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첨단 의료관광 상설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부산과 중국 낙양(하남성)간에 전세기 운항

9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낙양-부산간 왕복 14차 운항계획



중국 유신인 동문사굴

부산시관광협회(회장 이근후)는 중국의 국제 관광교류 거점지역 확대를 위하여 내륙지방의 관광 중심지역인 하남성 일원과 부경지 전세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다. 우선 김해국제공항과 낙양공항간에 직항 전세기를 취항시켜 부산과 하남성의 인아웃바운더 관광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내년부터는 정기 직항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협회 이근후 회장은 지난 4월 11일, 부산시의 강화된 관광진흥과장을 비롯한 인바운더 업계의 중국관광객 전담 유치 컨소시엄 업체 대표자 일행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하남성 현지를 방문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여행업계 대표들과의 구체적인 업무추진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현지에서는 하남성여유국을 비롯하여 낙양과 개봉시여유국, 낙양 공항 및 CQ 관계기관, 현지 여행업체들과의 연쇄적인 간담회를 갖고 1차적인 실행방안으로서 금년 9월에서부터 11월중에 부산-낙양간 총 14회 정도의 직항 전세기를 주2편 간격으로 취항하기로 합의 하였다. 이에 따른 실무적 의향서를 작성하여 부산시(관광진흥과), 하남성(여유국), 부산시관광협회의 3자간에 합의 서명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전세기 운항방법은 부산, 하남성 양지역 여행업계가 협력체를 구성하고 고객과 항공기 전세요금은 50:50 비율로 각기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는 한편, 부산과 하남성 양지역이 IN-OUT BOUND 방식으로 운영하며, 부산시와 하남성과 낙양시는 최대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세기 운항 항공기는 낙양공항의 사정과 중국의 항공 운항법에 따라 중국 국적 항공기로 하고 항공사 선정은 하남성측에서, 항공기 전세요금 결정은 부산, 하남성 양지역 여행업계가 합의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합의사항을 토대로 금년 5월중에 하남성 성장(省長)의 부산 방문시에 공식적인 MOU를 체결하도록 결정했다.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선호도가 높은편인 하남성은 중국의 중동부에 위치하고 총면적이 16,7만km이며, 인구는 약 1억명으로써 중국내에서도 초광역지역이라 볼 수 있다. 성내에는 명승고적이 곳곳에 산재하여 이른바 '국보'로 불리는 국가급 문화재만도 96곳이 되고, 중국의 7대 고도 중에서 위양(洛陽)·카이펑(開封)·안양(安陽) 3개가 하남성에 있다.

하남성은 또한 자연자원이 풍부한 관광 대상이다. 장려한 태산계곡, 국내외를 놀라게 한 인공수로 홍기거, 띠쳐림 구불구름 협곡에 흐르는 황하, 그리고 운대산·순산·왕옥산·선인산·계공산 등 수많은 산수풍광이 자랑거리이고, 중국 무술의 본산인 소림사와 용문석굴도 위치해 있다.

관광협회가 추진하는 이번 계획은 부산시가 인바운더 관광분야의 중점 시책으로 삼고 있는 중국인관광객 유치 전략에도 크게 부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가 기대된다.

자료제공 : 김중규 대외협력본부장

부산 영도에 '소형 독도 인공섬' 조성추진

독도 10분 1 크기로 조성, 내부엔 전시·역사관 설치... 관광자원으로 활용



인공섬을 통해 독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독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하면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해보자는 취지로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인근 공유수면에 독도 모양의 인공섬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면적은 독도 전체 면적(18만7000m²)의 10분의 1 크기로 동도(98m)와 서도(169m) 높이가 10분의 1로 줄여 조성할 계획이다. 사실감을 더하기 위해 독도의 산줄기와 지형, 인근 부속 도서도 그대로 옮겨 놓은 형태로 지을 예정이다.

인공섬 내부는 왕릉 내 전시관을 갖춘 경북 경주시의 천마총과 비슷

한 형태가 될 전망이다. 동도에는 각종 전시장과 역사교육장을, 서도에는 한국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역사관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 교수는 이 독도 인공섬에 '한국해양영토관'이라는 가칭을 붙였다. 최 교수는 지난 3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한국해양영토관' 건설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타당성 분석과 기본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날 보고회는 최 교수의 한국해양영토관 건립 계획이 지난달 국토해양부 산하 '영남씨그랜드센터'의 지역 현안제로도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영남씨그랜드센터'는 국토해양부와 부산시, 경남도 등이 연구 기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해양연구 등을 지원하는 사업단이다. 최 교수는 부산시·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예산 확보 방안과 설계 용역 등을 진행, 오는 12월쯤 기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8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해양영토관의 최적지로는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인근 공유수면이 꼽히고 있는데 올해 개장 예정인 국립해양박물관과 연계,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부산의 명소인 영도다리과 제2롯데월드 건설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에 세계의 크루즈선들이 찾는 국제크루즈터미널이 영도에 있어 관광과 독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인공섬 독도 조성은 독도를 찾기 어려운 국민들이 손쉽게 독도를 체험하면서 독도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주권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

김대현 기자

부산시민공원 574억 들여 조경공사

소나무와 은행나무, 느티나무, 뱀나무 등 93종 5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가 곧 시작된다.

부산시는 574억 5천만 원 규모의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에 총 93종 50만 2천826그루를 심는 식재공사에는 201억 원이 투입되며, 휴게시설과 놀이시설 등 127종의 시설물 공사에 103억 원이, 랜덤파크 폭포와 음악분수 등 9종의 수경시설에 81억 원이 들어간다.

부산시는 조경 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는 6월부터 시민공원 내 5개(기억·문화·즐거움·자연·참이) 숲길 별로 식재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조경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경공사 마무리는 2013년 12월로 예정돼 있으며, 공원 개장은 2014년 상반기에 이뤄진다.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보다 '부산 갈맷길' 을, 전국최고 관광자원 명품길 만들 터

부산 동쪽끝, 기장 임랑해수욕장 해안 따라 서쪽끝, 가독도 대항리 까지



부산 갈맷길 6코스에 속하는 낙동강 변의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에 노린 유채꽃이 활짝 폈다. 봄이 한창인 요즘 이곳엔 겨울철에 비해 3~4배 많은 갈맷길 투어객들이 몰려드는 등 갈맷길 700리(233.8km) 9개 코스를 즐기는 마니아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갈맷길은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갈의 합성어. 갈매기의 길이란 뜻이다. 갈매기에서 알 수 있듯 바다, 해안과 관련된 길이다. 놀이하는 갈매기가 멀리 보듯 대개 조망이 끝내준다. 부산은 바다, 산, 강이 어우러지는 삼포지향(三寶之鄉). 그런 만큼 갈맷길은 산이나 강도 품고 있다. 눈으로 즐길 수 있는 '호사'가 다양하다는 얘기다. 갈맷길은 모두 233.8km. 그래서 갈맷길 700리라 부른다. <표 참조>

갈맷길은 부산의 동쪽 끝인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해안을 따라 서쪽 끝인 가덕도 대항리까지 이어진다. 해안 코스(1~5코스)다. 뚝이 없지 않아서 죽 갈 수 있다. 해안을 따라 부산을 횡단하는 셈이다. 내륙(9, 7-6코스)도 있다. 기장군청에서 금정구 회동수원지-금정산-백양산-낙동강 제방-낙동강 하구둑으로 연결된다. 산과 강을 이용한 횡단코스다. 8코스는 금정구 회동수원지 쪽 상현마을에서 수영강을 타고 세로 방향으로 내려와 APEC나루공원까지 달린다.

이 길에 콘크리트마저 도시 생활에 지친 눈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풍광'은 기본. 낙동강 유채와 벚꽃, 금정산 전당대, 햇빛에 일렁이는 파도와 부서져 안개처럼 바람에 흩날리는 포말, 기암괴석이 빛나는 수목화...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대해를 바라보는 '영구망해(靈龜望海)'의 동백섬. 지금의 부산을 있게 한 '부산항', 한국 유일의 현 책방골목인 '보수동 책방골목', '쌍동시장', '가덕도 석회비'... 수많은 시연과 이야기도 많다.

2년 전 탄생한 갈맷길 이 자리를 잡으면서 '길기 동호회'도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포털 다음 카페에 갈매스(galmaes), 도보부산

(walkbusan), 느림보(neurimbo), bm5060 등의 걷기 모임이 결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 모임들은 정기적으로 갈맷길 투어에 나서거나 이야기, 사진 등을 올리고 공유하고 있다.

이처럼 갈맷길이 인기를 끌자 부산시도 나서 다채로운 서비스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항공사진을 이용해 갈맷길 700리 구성구석을 빠짐없이 담아낸 지도 2만5000세트를 제작해 주요 호텔, 시·구·군 민원 안내데스크에 배포하고 있다. 이 지도는 1코스 전체, 그리고 2-3, 4-5, 6-7, 8-9코스의 항공지도에다 코스별 지역 명소 소개, 도시철도·버스 등 교통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은 물론 코스별 거리, 소요시간, 경사 분석도 등을 표시, 갈맷길 이용자들이 본인의 체력조건에 맞는 걷기 코스와 구간을 골라 투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코스별 지역축제 현황, 맛집, 숙박업소 등의 정보도 담았다.

부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갈맷길 노선을 조정(21개 코스→9개 코스), 단절 구간을 없앴다. 또 5억원을 들여 지도·종합안내관·이정표 등 2만8000여점의 안내시설에 대한 설치 및 정비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갈맷길을 지역의 대표적 관광상품으로 변신시키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갈맷길 코스 안에 있는 명소를 활용한 템플스테이·섬투어·미니리수학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온 시민이 갈맷길을 즐기는 '갈맷길 축제'를 열고, 여행자 수첩과 확인 스탬프를 배치해 이용자들이 재미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갈맷길'이 올레길, 둘레길 등 다른 지역의 도보여행로를 앞지르는 최고의 명품길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갈맷길은 웰빙 시대에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촉매제이자 전국의 마니아들을 불러 모으는 새로운 지역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현 기자

갈맷길 700리 위성지도 제작

포토존, 전망대, 정자 등 편의 시설 등도 적극 추진

항공 사진을 이용 부산의 명품길인 갈맷길 700리 구성구석을 담아낸 지도가 제작됐다.

부산시는 갈맷길 700리를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갈맷길 700리 위성 상세안내도 2만5000부를 제작해 관광 안내소와 주요 호텔, 구·군 민원 안내데스크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안내도는 시가 확보하고 있는 항공도(항공사진)를 활용해 제작됐다. 9개 코스 20개 구간에 이르는 갈맷길을 한 장으로 담아낸 전면도와 구간별 코스 지명, 지물 등의 정보를 현상감 있게 수록한 세부도 등이 세트를 이루고 있다.

시는 또 갈맷길 700리를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명품길로 조성하기 위해 유도사인, 리본, 이정표 등 안내시설 설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스토리텔링 안내관, 포토존, 전망대·정자 등 편의시설 설치, 안내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도 적극 추진한다.

갈맷길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용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여행자 수첩 및 확인 스탬프 비치 등을 통한 갈맷길 700리 인증제와 템플스테이, 섬투어, 기장 미니리수학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갈맷길 사진 및 그림 경진대회, 부산 갈맷길 축제 및 그린워킹, 갈맷길 안내자 배치 등이 준비돼 있다.



갈맷길, 명품답게 운영관리계획 강화

종합안내관, 이정표·유도사인·리본 재단장 등 안내체계 정비

부산시가 명품 '갈맷길'을 만들기 위해 갈맷길 운영 관리 계획을 강화했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갈맷길 지도, 종합안내관, 이정표 등 안내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갈맷길 관리 운영 활성화 계획 을 수립했다.

시는 새로 정비한 갈맷길 안내 이정표, 유도사인, 안내리본 2만 8000여 점을 갈맷길 안내시설마다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로 정비된 이정표 등은 노란색과 녹색을 바탕으로 갈매기 형상과 편안한 글씨체를 더해 이용객들의 눈에 띄기 쉽도록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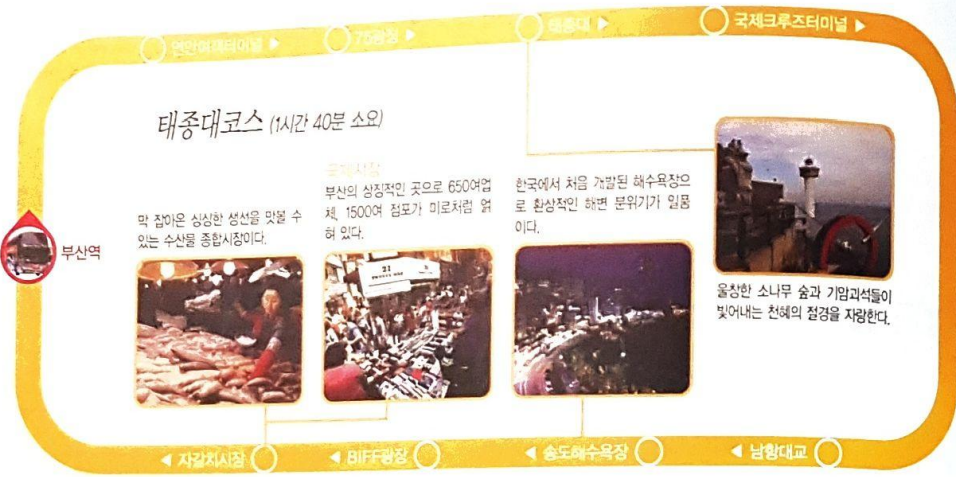
또 시는 2016년까지 단계별로 갈맷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중이라고 덧붙였다. 편의시설은 ▷유명시설, 전설 등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안내관' ▷추억의 포토존 ▷전망대·

정자·화장실 등 편의시설 ▷안내센터 및 게스트하우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갈맷길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여행자들이 갈맷길을 걸으면 스탬프를 찍어 확인해주고 각종 혜택을 주는 갈맷길 인증제도, 갈맷길 체험프로그램, 갈맷길 사진·그림 경진대회, 갈맷길 안내자 양성 등의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객들이 갈맷길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은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 개인택시·버스 운전사를 대상으로 하는 갈맷길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갈맷길이 지역 시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도 명품길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부산시티투어버스 운행코스



부산시티투어 이용안내

출발지 부산역광장 아리랑관광호텔 (도시철도 1호선 - 부산역 8번출구, 기차 - 부산역 1번 입구)

탑승요금 어른 10,000원 / 어린이 5,000원

운행안내 연중 운행, 공휴일 정상운행(월요일 휴무)



부산 슬로시티 관광명소 1, 2호 탄생 슬로시티 1박2일 여행상품 등 개발계획

느리게 걷고 천천히 돌아보며 삶의 휴식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부산의 '슬로시티 관광명소' 제1, 2호가 탄생했다. 시는 전문가 회의를 거쳐 '보수동 책방골목'과 '갈매길 2코스'를 슬로시티 관광명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과정에서 부산만의 독특함을 가진 자연, 문화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성, 관광명소로서의 접근성 등이 고려됐다.

보수동 책방골목은 전국에서 유일한 책방골목으로 부산의 대표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꼽힌다. '책'이라는 테마와 책방골목이 지닌 역사성 등이 매력으로 평가됐다.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카페 등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생겨나고 있다. 자갈치·국제시

장, 용두산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운대 문래로드에서 동백섬, 광안리해수욕장, 이기대 등으로 이어지는 '갈매길 2코스'도 바다를 걷기 아름다운 해안산책로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민락회센터와 광안대교,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등 관광자원과의 연계성도 우수하다.

부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슬로시티 관광명소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해당지역에 대한 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한국슬로시티본부 및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슬로시티 관광명소 탐방프로그램', '슬로시티 1박2일 여행상품'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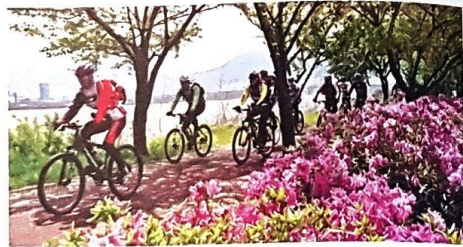
낙동강 물길 따라 385km 국토종주 낙동강 자전거길 울속도 하구-안동을 잇는 4대강 사업 일환으로 부산·경남·대구·경북 등에서 열려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은 지난달 22일 낙동강 자전거길에 '국도 종주 낙동강 자전거길 통합 개최행사'를 통해 부산·경남·대구·경북 등 4개 권역에서 일제히 열린다고 밝혔다.

부산 울속도 하구와 경북 안동시를 잇는 낙동강 자전거길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총연장 385km인 자전거길은 하천 구간 295km, 우회 구간 100km로 이뤄졌다.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시민은 운동 효과 외에 상주보 강정교령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8개보와 하회마을 삼강주막 경전대 해평돌 등 주변 경관을 담으며 즐길 수 있다. 강변을 달리다가 시가지로 들어서 시내 관광을 할 수 있고, 낮은 아산을 질주하는 긴장감을 즐길 수도 있다. 부산권역 행사는 울속도 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국토청은 맥도 생태공원을 거쳐 양산 낙동강교를 돌아오는 왕복 44km로 이번 행사

를 기획했다. 일반인을 위한 코스(12km)도 별도로 마련했다. 경남권역은 함안군 칠서면 함안지구 생태공원에서 출발해 창녕 함안보, 길곡지구, 본포교, 수산대교, 하남2지구를 왕복하는 56km 구간으로 설계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열린다.



기장 대변항~ 죽도 연결 교량 완공 대변항 관광어항으로, 야간 LED조명 설치

부산 기장군 대변항과 인근 섬인 죽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놓인다. 동해어업관리단은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변항과 죽도를 연결하는 다리를 오는 5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너비 2m, 길이 65m의 이 다리가 완공되면 배를 타고 가야했던 죽도 물양장을 어민들이 걸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또 교량 내·외벽과 바닥을 아크릴 기법의 비화로 꾸미고 LED 조명을 설치, 야간에 도색이던 경관을 밝게 한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대변항을 관광어항으로 꾸미기 위해 총 200억 원을 투자해 다기·어항 조성사업이 한창이다.



낙동강, 한강 부럽지 않은 시민 위한 여가공간으로 거듭난다 맥도, 대저, 삼락, 화명, 울속도 생태공원으로 조성

낙동강 주변이 한강 못지 않은 시민들을 위한 생활여가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다. 낙동강 사업본부에 따르면 낙동강 양안 둔치와 울속도에 생태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강서구 쪽 둔치에 맥도·대저지구 생태공원이, 북·사상구 쪽 둔치에 삼락·화명지구 생태공원이 들어선다. 낙동강 하구 강 가운데의 울속도에도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보트·카누 등을 타거나 야구·축구 등 스포츠 활동을 하는가 하면 자연 거러이팅·소풍·생태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맥도·대저 생태공원
대저지구 생태공원(2.66km·80만여평)은 강서구 대저동 주변 낙동강 둔치에 있다. 37만㎡(약 11만여평) 크기의 유채경관단지, 벚꽃, 다목적 공간·운동시설 공간·중앙광장·청소년광장·친수호안 등이 만들어진다. 유채꽃 단지는 제주도를 제외한 단일 꽃밭으로 국내 최대 규모급이다. 노란 유채꽃이 온통 시야를 노랗게 물들이는 장관이 불만하다. 수련·꽃창포 등 꽃들로 이뤄진 초화원, 물푸레나무 등으로 꾸며진 수생식물원, 연꽃단지 조성된다.

다음 달 3일 시민들에게 개방돼 낙동강변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낙동강 대저지구 생태공원의 유채꽃 단지, 맥도지구 생태공원(2.54km·77만여평)은 대저지구 남쪽 아래 위치한다. 연꽃·수련·아이리스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생식물원, 생태학습원, 연꽃습지, 철새먹이터 등이 만들어진다. 잔디광장, 선착장, 수변오솔길, 이팝나무길, 다목적광장, 탐방데크 등도 조성된다. 특히 대저와 맥도지구를 잇는 12km 길이의 메타세쿼이아 명품 가로수길이 등장한다. 이 또한 쪽쪽 뿜어 수형이 멋진

메타세쿼이아 길 중 국내 최장 651미터다. 메타세쿼이아 식재는 이미 마친 상태다. 이 길 옆으로 명품 대나무 숲길이 조성된다. 역시 12km 길이다. 현재 대저 생태공원 쪽의 750m만 공사가 끝난 상태다.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대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삼락·화명·울속도 생태공원
화명지구 생태공원(1.41km·43만여평)은 화명동 신시가지와 가깝다. 연꽃들이 만발하는 생태습지와 잔디광장, 하천숲, 화명의 숲, 보트 등 계류장 등이 들어선다. 주변에 화명동 신시가지 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체육공원·야구장·야외수영장 등에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이 조성된다. 그 남쪽 아래에 있는 삼락지구 생태공원(4.2km·143만여평)은 가장 규모가 크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체육공원·야생화단지·문화마당에 사계절 꽃단지(철새먹이터), 파크골프장(잔디광장), 보트 등 계류장,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5km) 등이 만들어진다. 또 둔치를 1.2km의 수로를 타고 도는 순환형 배길, 오토 캠핑장 등도 설치된다.

낙동강 하구의 울속도에 만들어지는 울속도 생태공원은 3.52km(106만평) 규모다. 울속도 상부(울속도)에 철새 휴식지인 생태호수가 들어서는 것을 비롯, ▲전망·탐방데크 ▲산책로 ▲해수·담수 습지 ▲벚길 생태 탐방로 ▲생태숲 ▲생태통로 ▲메모리얼 파크(시민광장) 등이 만들어진다. 향후 청소년생태수련원 건립도 계획돼 있다.

이효영 기자

부산시 '우리마을 녹색길' 3곳 조성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휴식공간 제공

부산에 '우리마을 녹색길' 3곳이 조성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2012년 우리마을 녹색길 조성사업' 공모에서 부산 강서구 천가동 갈매길, 해운대구 십오읍이달맞이길·삼포길 연계 탐방로, 북구 기림나조길 등 3곳이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마을 녹색길이란 지역이 가진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마을 주변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을 이린이, 장애인, 노인 등 누구라도 쉽게 탐방할 수 있는 도보 중심의 길을 말한다.

천가동 갈매길은 강서구 가덕도 해안을 따라 걷는 둘레길로 조성하고, 외부 방문객 안내 및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친환경 방문객 지원

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해운대 지역은 문래로드에서 이어지는 십오읍이달맞이길과 삼포길을 연계한 탐방로로 조성한다.

기림나조길은 북구 금곡동 산자에서 대천천을 따라 낙동강변으로 이어지는 행빙 숲길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국가와 부산시가 각 50%씩 부담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친환경 녹색길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내 최대 규모 '부산중앙광장(가칭)' 조성 본격화

광화문 광장보다 넓은 축제·공연·역사·문화 마당이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으로 탄생

서울 광화문광장보다 넓은 국내 최대 규모가 될 '부산중앙광장(가칭)'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장이자 도심 안 시민 만남의 장소로 부산 대표 광장은 부산진구 부전동 삼전교차로~양정동 송공삼거리 구간 기존 도로 위 3만4740㎡(길이 700m, 폭 45~78m) 공간에 만들어질 예정이다. 삼전교차로 북에서 송공삼거리 쪽으로 ▲공연 및 이벤트 공간이 될 문화마당 ▲정역적인 부산 시민의 동적 활동 공간이 될 다이나믹 부산마당 ▲역사체험 및 기념공간이 될 역사마당 등이 조성된다.

'문화마당'은 기존 땅을 7m 아래로 파 만든 '신큰광장(반지하형 야외공연장, 면적 4020㎡)을 비롯, 잔디스탠드·카페 등 편의 및 판매 시설 등으로 이뤄진다. 다이나믹 부산마당(전체 면적 1만570㎡)엔 잔디광장, 화강암 판석 등이 깔린 포장광장, 실개천, 산책로 등이 들어선다. 이곳은 거리공연, 시민행사, 루미나리에 축제, 댄스퍼포먼스 등의 다양한 시민 활동 공간으로 활용된다.

'역사마당'(전체 면적 8600㎡)은 옛날지도 문양을 한 바닥분수, 입체왜관 당시 동래부사였던 송상헌공 동상 기념광장, 모녀며 고개 재현 숲 등으로 구성된다. 조선시대 이 지역에 있었던 '모녀며 고개'는 동래

와 부산 혹은 양반·평민 거주지역 간 경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광장은 현재 전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실시설계는 오는 7~8월쯤 마무리 예정. 조성 공사는 9월쯤 시작, 2013년 12월 완공될 계획이다. 공사비는 173억원.

또 이 광장 조성으로 없어지는 도로(양복 8차로)를 대신한 새 도로가 개설된다. 현행에 있었던 진로동 쪽 길이 700m에 폭 4차로(20~25m)의 도로가 만들어진다. 삼전교차로에서 양정교차로 쪽으로 연결된다. 시장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다. 예전습이 많았던 양정동 쪽에는 삼전교차로~하마징 방면 간 도로가 조성된다. 길이 1.4km에 폭 7차로(30~25m) 규모다. 이들 두 도로 모두 광장 맞은편 인도 옆으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다. 지난달 착공한 이들 2개 도로는 내년 6월쯤 완공 예정이다.

부산시 측은 "부산중앙광장(가칭)은 도심 한가운데 시민들을 위한 만남과 소통, 열린 문화 향유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또 종전 삭막했던 차량 중심의 이스퀘일이 자연과 문화가 숨쉬는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효영 기자



만남과 소통, 열린문화의 장소로 자리하게 될 부산중앙광장(조감도)은 부산진구 부전동 삼전교차로~양정동 송공 삼거리에 조성된다.

용두산공원 부산타워, '희망등대' 불 밝혔다 119m 전망대 옥탑에 등명기 설치... 이색 관광명소로 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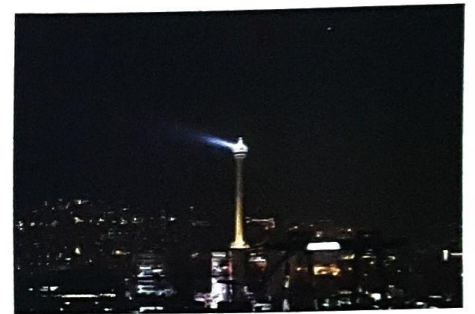
부산 용두산공원 부산타워가 '희망등대'로 변신했다. 부산광역시 등대에서 빛을 비추는 기계인 등명기를 부산타워 전망대 옥탑에 설치. 지난달 18일부터 밤마다 불을 밝히고 있다.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도시브랜드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각인시키고, 도심에 우뚝 선 이색 등대로 관광명소화하기 위해서다. 부산타워의 등명기는 무게 50kg으로 일반 등대에 설치돼 있는 무게 1t짜리 보다 작다. 밝기는 300만cd(칸델라) 이상으로 인근 중구뿐만 아니라 영도서구 전 지역에서 불빛을 볼 수 있다.

부산시는 부산타워 등대 불빛이 영도서구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어 남항대교 방향 쪽으로만 불을 밝힐 방침. 등대 운영시간도 해가 진 뒤부터 부산타워 소등시간인 밤 10시40분까지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까지 부산타워 희망등대를 시험운영한 뒤 부산항만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 전국 최초로 '관광용 등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타워 소등 때까지 등대를 운영할 경우 항로표지 시설 관리 지침 상 운영시간(일몰~일출) 미달로 정식 등대 지정요건을 충족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산타워는 1973년 해발 60m의 용두산공원 정상에 우뚝 섰다. 높이 119m 전망대에서 영도다리, 부산대교, 부산항, 자갈치시장, 남항대교, 오륙도 등을 볼 수 있다.



용두산공원 부산타워가 등명기를 설치해 불을 밝히는 '희망등대'로 변신했다.

용두산공원 영화체험박물관 6월 착공 영화도시 부산의 대표적인 인프라로 개발예정

영화·영상도시 부산의 또 다른 명소가 될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사업이 본격도에 올랐다. 부산시는 중구 용두산공원 내에 추진 중인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다음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화체험박물관 사업은 민간투자 유치(BTL)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 컨소시엄과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상이 상당히 진척돼 곧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지난 2005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처음 시작된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영화체험박물관은 총 331억 원을 들여 용두산공원 부지 4천300㎡에, 연면적 1만 2천300㎡(지하 3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다. 완공은 2014년 6월로 예정돼 있으며, 향후 20년간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운영권을 갖게 된다.

박물관에는 영화의 역사와 미래, 제작과정을 보여주는 전시관을 비롯해 영화장면 재현시설, 촬영체험실, 동작 캡처 체험실, 3D 영상관, 교육·강의실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시 관계자는 "영화의 역사와 제작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로 영화·영상도시 부산의 대표적인 인프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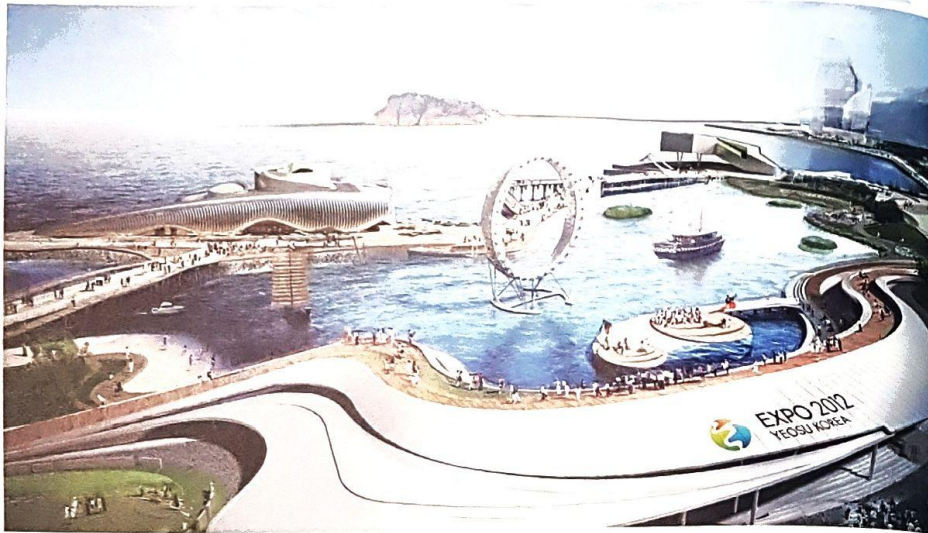
용두산공원, 토요일마다 전통민속놀이 즐긴다

매주 토요일 용두산공원을 찾으면 흥겨운 우리 전통민속놀이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4시30분 용두산공원 야외광장과 상설공연장에서 '2012 토요일 전통민속놀이마당'을 연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전통놀이 마당은 지난해 회당 1천300여 명이 관람하며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

공연은 매회 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영상재보존회, 부산가야금연주단 등 1~2개 팀이 출연해 송원곡, 대대포추소리, 동래야류, 영산재 등 부흥문화재 공연과 사물놀이, 고성오광대놀이, 판소리, 퓨전음악 등 전통민속공연 및 전통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마당 등을 선보인다. 단, 7~8월은 공연이 없다. (888-3485)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 세계 최고 해양축제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막 국제관 등 모두 76개 전시관... 첨단영상·퍼포먼스 버무린 '환상체험'



전남 여수 신항일대에서 93일간 펼쳐지는 '경제·문화 올림픽'인 여수세계박람회가 지난 12일 개막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동석)에 따르면 여수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3대 축제로 꼽히는 메이드급 국제행사다. 이번 여수 엑스포(2012 여수 세계 박람회)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 106개 국가와 10개 국제 기구가 참여한다.

'살아 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란 주제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는 국제적으로 해양과 연안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기후변화,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현안과제를 화두로 제시하게 된다.

총 면적 270만㎡ 중 총 25만㎡에 달하는 박람회장 부지내에는 특화시설과 전시관은 물론, 공연, 행사 등을 통해 1만여 가정에 달하는 세계 최고수준의 각종 즐길거리를 관람객들을 맞는다.

박람회장에 들어서면 먼저 여수세계박람회를 상징하는 4가지 특화시설을 마주하게 된다.

박람회장 정중앙에 위치한 높이 40m의 O자형 세계 최대 분수인 '빅오(Big O)'와 국제관 중앙홀로 진장해 설치된 폭 30m, 길이 218m

의 초대형 LED 스크린 '엑스포 디지털 갤러리(EEG)'가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게 된다. 또한 박람회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이자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옥외 파이프오르간인 '스카이라이프'와 함께 서울 63빌딩과 코엑스, 부산 해운대 아쿠아리움 등 3곳을 모두 합친 크기인 6천톤 규모의 초대형 수족관인 '아쿠아리움'도 여수세계박람회의 자랑거리다.

전시관에는 6분마다 200명씩 입장한다. 로비를 들어서면, 초대형 파노라마 미디어월과 대화형 디스플레이가 나타난다. 파노라마월에서는 남극·이도·우즈홀 등 전 세계 주요 해양기지 모습과 그곳에서 이뤄지는 연구활동 영상을 보여준다. 대화형 디스플레이에서는 남극 세종기지와 하루 한 차례 화상채팅을 진행한다.

전시관은 '바다의 가치'라는 주제로 꾸며졌다. 지구와 바다의 탄생, 해양생물, 인류의 바다이용 등을 감성적인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바다의 위협'을 주제로 한 전시관은 지구온난화·해수면상승·기름유출 등 환경위기를 극심한 비연과 진장 영상으로 보여준다. 주제관의 메인 캐릭터인 '듀공'이 등장해, 관람객과 실시간으로 대화



하고 행동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된다.

이어지는 메인쇼 공간은 주제관의 하이라이트. 지름 28m, 둘레 88m, 높이 20m 돔형 공간에서 12분 동안 진행되는 쇼는 가로 22m, 높이 13.5m의 곡선 스크린에 실시간(實時)과 컴퓨터그래픽으로 연출되는 7분30초의 영상으로 시작된다. 이어 천장에서 3m 크기의 '듀공' 로봇이 내리꽂고 실내를 날아다닌다. 이때 실내공간 전체는 바닷속 환경으로 바뀐다.

주제관 등 76개 전시시설 선보여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모두 76개의 전시시설이 선보인다. 이 가운데 '주최국 전시관'은 주제관과 부채관 4곳, 한국관 등 6곳. 여수엑스포의 주제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핵심 공간이다.

주제관 관람에는 37~38분가량 걸리는데, 6분마다 200명씩, 93일 동안 개장시간(14시간) 내내 입장할 경우, 230만명이 입장할 수 있다. 전체 예상 관람객 800만~1000만명의 23~28%만 관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말 등에는 예약이 필수다.

태극문양의 외관이 아름다운 한국관은 밤이면 화려한 조명으로 엑스포장 야경을 수놓는다. 대형 전시관과 영상관 등 2개의 공간에서 한국인의 해양 역량을 보여준다. 영상관은 세계 최대규모인 높이 15m, 지름 30m의 돔 스크린과 360도 서클비전을 통해 보는 이를 압도하는 영상을 선보인다.

임원철 의진본부장 겸 한국관장은 "한국관은 박람회 주제에 걸맞게 에너지저장형 건물로 건립, 친환경(green) 박람회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아이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채관 중에는 해양문명도시관이 가장 크다. 과거 인류 문명발전의 루트로서 해양의 역할을 다룬 '해양문명존'과 미래 해양도시 비전을 제시한 '해양도시존'으로 꾸며졌다.

김종관 해양문명도시관 전시연출담당은 "9세기경 당나라와 아랍간 무역선으로 추정되는 28m 길이의 난파선을 복원, 배 위에 올라 당시의 항해술과 배에 실린 보물, 선원들의 모습 등을 살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후환경관, 해양산업기술관, 해양생물관 등 부채관에서 바

다와 해양생물, 환경문제 등 세계박람회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체험·영상·퍼포먼스 등이 펼쳐진다.

국제관·해양메스트관 등 중심

여수세계박람회에 참가하는 105개국 전시관이 선보이는 곳이 국제관. 박람회장에서 가장 큰 건물로 서울 코엑스의 3배 규모다. 대서양·태평양·인도양 등 3대양별로 국가관들을 구분 배치했다.

국제관 2층은 참가국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열어 전 세계 음식을 맛보고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다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자봉에는 남해안 절경과 박람회장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있다.

현대자동차·삼성·SK텔레콤·LG·GS칼텍스·롯데·포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독자적으로 첨단기술과 미래비전을 담은 체험 위주 전시관을 운영한다.

이 밖에 해양메스트관, 국제기구관, 국제박람회기구관, 지자체관, 한국해양재단관 등이 대체로 온 전시를 펼친다.

아오엔 체험전시시설 들어서

아의 공간에 조성되는 체험전시시설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도를 견당이다.

엑스포장 북쪽 해안에는 원양어업체험장이 조성됐다. 원양어선에 승선, 참치조업과정(시물레이션과 방동어창을 체험하고 잔물 어구 미니어치를 만날 수 있다.

오동도 가는 방파제 옆에 있는 연안어업체험장에서는 연안어선과 미니양식장, 이동식 바다숲 등 연안어업 변화과정을 실물전시로 볼 수 있다.

박람회장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8만㎡)로 조성된 에너지파크에서는 7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2.2MW급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 미로게임, 자전거물대포, 재활용로켓 등 다양한 에너지활용 시설을 직접 운영해볼 수 있다.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받아 운행하는 온라인 전기버스도 시승할 수 있다.

윤용호 환경에너지부장은 "에너지 생산과 교육·체험·휴식이 복합된 테마공원"이라고 말했다.

손해식 편집위원

광안대교 등 해안순환 교량, '세계 명품 관광자원화' 추진

2014년 북항대교가 완공되면 광안대교에서 거가대교까지 총 52km에 이르는 7개의 해안순환도로 완성

광안대교 등 부산의 해안순환도로를 완성하는 7개 교량(다리)을 세계적 명품 교량으로 조성하는 Bridge of BUSAN, 세계 명품화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2014년 북항대교가 완공되면 광안대교에서 거가대교까지 총 52km에 이르는 7개의 해안순환도로가 완성된다. 이들 교량은 현수교(광안대교 7.42km), 사장교(북항대교 3.33km), 아치교(신호대교 0.84km), 침매타널(거가대교 8.20km), 경사교량(거가대교 1.12km) 등의 다양한 형태로 건립돼 아름다운 부산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뛰어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북항대교 준공을 끝으로 해안순환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단순한 도로 기능만이 아닌 지역과 지역을 잇고 그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부산의 대표 공간으로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해안을 끼고 7개에 이르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량을 가진 도시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부산이 유일하다.

부산시는 이 해안 교량을 명품화, 관광자원화해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민 아이디어 공모는 교량별 특성을 살린 지인 활용,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명품 관광 브랜드를 창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량박물관 건립 등 경관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 교량 특성별 체험형 레저 등 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 발굴, 교량별·지역별(광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마케팅 극대화, 유료도로 효율성과 이용 증진

등 민자(유류)도로 효율적 운영방안, 교량 등 관광시원을 활용한 광고 수입 방안 등 5개 분야로 추진된다.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부산시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부산시(www.busan.go.kr)와 부산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bdr.or.kr)를 참고해 21일까지 이메일(cors@korea.kr)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별도의 테스트코스(TF)을 운영하는 등 Bridge of BUSAN, 세계 명품화 추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또 10원짜리 최종 용역결과 보고회를 갖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벤치점프대, 전망대, 레포츠 시설 등 마음으로부터 그러오던 기반하고도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 광안리 미월드자리에 국내 최대 규모 호텔 건립

1천600객실, 야외수영장, 스파, 연회장, 피트니스 센터 등 다양한 부대시설 갖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위치한 놀이공원 미월드 자리에 국내 최대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계획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자연시티건설과 미월드 최초 설립자인 김성규씨가 최근 공동 명의로 '미월드 재개발을 위한 민락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놀이공원시설(2만8천300㎡)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국내 최대 규모인 1천600개 객실을 갖춘 가족형 호텔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전체 객실의 30%는 테라스형으로 조성되고 야외수영장, 스파, 초대형 연회장, 피트니스센터, 어린이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갖추게 된다.

미월드는 부산시가 유치한 지역 최초의 민간개발 도시 근린공원

시설로, 총 700억원이 투입돼 2004년 4월 문을 열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수영구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3만여㎡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호텔과 콘도 건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

사업자 측은 최근까지 미월드 부지에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을 검토했으나 부산시에서 불카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호텔 개발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월드 관계자는 "컨벤션 산업 발전과 관광객 증가 등으로 숙박시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호텔이 부족한 광안리에 국내 최대 규모 호텔 리조트로 개발하리므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응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 중국 자본 3천2백만불 유치, 동북아 관광거점으로 될것으로 기대

그동안 투자유치 등의 어려움을 겪었던 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내 진해응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올해말 정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르면 올해 말 1단계 공사가 시작된다.

응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1조1천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개발프로젝트, 부산 신항서커테이너부두 서쪽 준설투기장 일대 225만8,000㎡(약68만평)에 오는 2018년까지 골프장(36홀)과 리조트 빌리지 등 숙박시설, 외국인학교, 병원, 아쿠아리움, 키즈파크, 오토캠핑장 등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 복합휴양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9년 12월 용원(무학)·STX건설사업이 설립한 (주)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시공사가 일정기간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뒤 빌주자에게 넘겨주는 수주방식인 BOT(Built Operate Transfer)로 사업이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응동지구와 인접한 진해시 제덕동 일대 46만9,000㎡ 규모의 응동지구도 추가로 개발될 예정이다. 구역청은 최근 지식경제부로부터 응동지구에 대한 신규 개발지정을 받았다.

이로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기존 19개 지구에서 19개 지구로 늘어났다. 이번 신규 개발지구로 지정된 응동지구는 인터퍼시픽진해(주)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민자 개발사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인터퍼시픽진해 측은 오는 2013년까지 이 일대를 대규모 여가·휴양시설로 개발할 계획이다.

응동지구 중심부에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양식을 한국적,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수경시설을 만들고 상당부에는 다도체립관을 하단부에는 관광과 웰컴센터, 도예문화원, 문화·전시공간 등을 설치하게 된다.

또 1200객실 규모의 빌라형 콘도도 조성된다. 이에 따라 응동지구는 복합관광레저단지로 개발되는 인근의 진해 응동지구와 더불어 동북아 관광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역청과 진해오션리조트는 올해 말 의국병원과 아쿠아리움 등에 대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 투자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4년 9월에는 지난 4월 투자유치가 확정된 창원국제외국인학교가 개교한다. 같은해 8월에는 호텔과 아쿠아리움, 키즈파크, 오토캠핑장 등 2단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제17회 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그 해 영화제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알려준다(사진은 올해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포스터).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얼굴이 될 공식 포스터가 세상에 나왔다. 올 BIFF 공식 포스터는 한국화가 홍푸르메(고신대 교수) 작家的 '빛이 열려 (Opening of His Light)'를 원화로 해서, 최순대 부산국제영화제 미술감독이 디자인했다. 수묵과 여백의 강렬한 대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눈 밝은 BIFF 스태프들의 레이디 망에 포착된 홍푸르메 작가의 작품 '빛이 열려'는 태초의 세상을 비추던 빛, 즉 신의 선한 의지가 담긴 '창조'와 '자유'를 표현한 작품이 포스터 속에 드러난 '빛'은 마치 카메라와 영사기를 통해 살아나는 빛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수묵과 여백의 강렬한 대비는 '영화의 전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추구하는 영화제의 열정과 에너지를 한국적 시각과 감성으로 담아냈다고 한다.

BIFF 공식 포스터는 해마다 4월께 발표하게 되는데, BIFF가 개막하기 전까지 BIFF를 대표하는 얼굴마담 역할을 하며, BIFF를 알리는 데 큰 몫을 하게 된다. 어디 이뿐인가, 공식 포스터는 그해 BIFF가 추구하는 지향점을 알려주는 나침반 구실도 한다. 공식 포스터 속에 BIFF가 담아낼 영화제 메시지가 숨어있는 것이다.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4-13 October, 2012

부산 해수욕장 차별화로 관광객 유치 경쟁

송도 '아이사랑 존' 에해수풀, 다대포·일광·임랑도 행사 다채

부산지역 해운대, 광안리, 송도 등 해수욕장들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개장한다.

부산시는 최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수욕장 관할 구·군과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해수욕장 운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 참가한 해수욕장 관할 구·군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보다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 개장 100년을 맞는 송도해수욕장에서는 '아이사랑 존'이 눈에 띈다. 시구청은 워낙운영업체를 선정해 오는 6·9월 송도해수욕장에 가족단위 피서객을 위해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해수풀을 설치할 계획이다. 송도해수욕장에서는 또 살사댄스 동아리 모임과 기타 동아리 정기 연주회,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축구 배구 등 스포츠존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운영할 예정이다.

다대포해수욕장에서는 7.8월 두 달간 인공물결 및 물놀이시설을 운영하는 한편 해양스포츠 아카데미 청소년분화존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다. 일광과 임랑해수욕장에서는 7월 중 기장군 주관으로 조개잡이 및 후릿그물 체험행사가 개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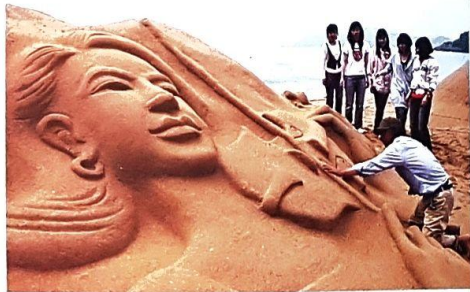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오는 6월 22일-8월 26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해변로를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만남의 광장에서는 해변거리음악회를 개최한다. 또 테마거리에서는 야외갤러리와 소규모 거리공연이 상시 열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아트마켓을 개설해 전시 및 판매행사를 갖는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매주 금,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벤트 광장과 호안도로 등에서 거리공원이 열리고 살사댄스 페스티벌과 모래조각 체험교실 등도 마련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해운대 광안리 송도 외에 송정해수욕장도 6월부터 조기 개장해 9월 10일까지 운영한다. 이 외 다대포 일광 임랑해수욕장은 7.8월 두 달간 문을 연다.

해운대 모래축제

'See Sand, Feel Sand, Enjoy Sand' 바다가 부른다.

- 개최일시: 6.1(금) - 4(일) 10:00 - 6.3(일)은 제외 ▶ 6.3일은 제25회 모래작품전만 개최합니다
- 운영시간: 매일 10:00-14:00까지
- 진행: 인터넷 또는 현장에서 3-4명 단위 참가자를 사전 접수
 - 현장에서 배부되는 삽과 물뿌리개 등을 활용하여 모래작품 작업실시
 - 매일 저녁 발도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우수작에 대해 기념품 증정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현장접수(11:00 까지)
- 참가인원: 4인 - 7인
- 참가비: 10,000원(팀별)
- 기타: 기념품 증정



윈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예술문화 축전 마련

예술문화축전 내달 29일까지...거리 콘서트·시 낭송 등 다채 중앙동 40계단 일원에서 2달간 축제 열려

부산 중구 중앙동, 동광동에 가면 일상을 축제로 만날 수 있다. 윈도심 창작공간 '또따또가' 운영지원센터는 다음 달 29일까지 '일상의 축제-매일 매일 기다리'라는 슬로건과 함께 시민을 위한 예술문화축전을 마련한다. 지난해 2주간이던 행사 기간을 두 달로 늘렸다.

축제 기간 매주 월·금요일 낮 12시 중앙동 40계단 앞에서 퓨전국악그룹 아비오, 우왕수밴드, 미즈 챔버콰이어를 비롯한 공연팀이 출연하는 거리 콘서트를 연다. 화·목요일 점심시간에는 같은 곳에서 또따또가 입주 작가와 시민이 참여해 시를 낭송하는 '시 읽는 계단' 행사를 진행한다.

작가가 손수 만든 수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예술 프리마켓 '모다란 전'을 다음 달 2일 사이 일요일 오후 3-8시 중구 광복로 차 없는 거리에서 연다.

소중한 사연을 낭독하는 인문학 콘서트 '핀지'를 25일 오후 7시 또따또가 아카이브센터에서 개최한다. 또따또가 아카이브센터 '스페이스 닷(DOT)'에는 ▷또따또가 입주 작가 상설전 '하모니' (오는 25일까지) ▷김창연 사진전(오는 29일-다음 달 9일) ▷윈도심 미술창작공간 미술작가 정기기획전(다음 달 11-30일)을 준비했다. 또따또가 갤러리에서는 축제 기간 골목을 주제로 한 여행사진전 '골목, 하늘이 이어지는 길'을 연다.

운영지원센터는 올해 골목길 프로젝트로 인쇄골목에 화분 뒷받침 가꾸고 배움의 골목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효영 기자



부산, 동남권 문화콘텐츠(CT)산업으로 비상

공연,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교육, 캐릭터 등 다양한 CT분야 포진

부산 문화콘텐츠(CT)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요람이 될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BCC)가 지난 30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부산시가 지난 2009년 착공한 BCC 건립공사에는 국비 145억 원과 시비 167억 원 등 모두 312억 원을 투입했다.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연면적 1만5800㎡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됐다.

CT산업 부흥을 위해서는 기업과 시설이 집적화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BCC는 앞으로 부산이 동남권 CT산업 허브로 발전하는 데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BCC에는 (주)인티박스소프트, 아이리얼(주), (부)블루숨, (주)파크이앤에스 등 지역 기업 26개사와 역외기업 5개사가 입주하며 85%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역외기업 중에는 국내 굴지의 게임회사인 넥슨의 게임운영파트(게시판 관리, 정보 제공 등)를 담당하는 넥슨 커뮤니케이션즈가 부

산을 본사로 둔 자회사 형태로 BCC에 들어왔다. 또 BCC로 TV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 스튜디오 게일의 부산지사과 교육용 앱 제작업체인 (주)휴먼웍스의 부산지사도 BCC에 등지를 들었다. 넥슨 커뮤니케이션즈는 직원의 대부분(28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했고, 스튜디오게일도 인제대와 경성대 출신 인력들을 뽑아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BCC에 31개 기업이 입주하면서 지금까지 120명 내외의 신규 고용을 창출,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BCC에는 영상(7개사)과 게임(5), 애니메이션(4), 출판(3), 교육(2), 공연(2), 캐릭터(1) 등 다양한 CT 분야의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영상 산업은 기존의 단순한 영상물 벗어나 기술력을 요하는 컴퓨터그래픽(CG)과 입체영상, 캐릭터 디자인 등 CT산업과의 하이브리드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 BCC가 부산 영상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영상도시' 역할은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이다.

창사5주년

부산의상징, 아름다운 광안대교와 함께 어우러진 아쿠아펠리스 & 리조트 특급호텔



온천
전 객실은 바다를 조망토록 호화롭게 꾸며지고 고객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
대·중·소 규모의 연회장은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조건과 환경 제공

바다와 같은 하늘, 하늘같은 파란바다가 두손에 잡힐 듯 내려다 보이는 광안리 해변에 자리잡고 있는 아쿠아펠리스&리조트 호텔은 바다라는 지역적 특색과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타 호텔과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 객실은 바다를 조망하도록 꾸며진 호화로운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 애 하는 감탄사가 자신도 모르게 나온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투철한 윤리의식과 확고한 마인드가 확립되어 있는 종사원들은 고객이 머무는 동안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세심한 배려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고객들로부터 칭찬받는 호텔로 거듭나고 있다. 리조트만의 여유로운 공간에 세련된 인테리어

를 갖춘 로얄 스위트, 가족단위의 고객에게 기본 좋은 휴식을 제공하는 패밀리 스위트, 심플하고 고전적인 멋이 있는 온돌 스위트, 모던한 디자인에 부드러운 색조로 둘러싸인 스탠다드 등 타입별 객실은 고객 취향에 따라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물론 전 객실은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개인음극고, 벽걸이 LCD TV는 기본이다.

여유와 낭만이 느껴지는 곳은 비단 객실뿐만은 아니다. 식음업장을 비롯한 연회, 웨딩업장은 또다른 고객객동을 준다. 라이브 뮤직과 달콤한 디저트뷔페가 있는 로비라운지, 갓 구워낸 패스트리와 허브를 이용한 머핀을 만날 수 있는 델

리쉬, 정통 일식의 진수를 느낄수 있는 일식당, 광안대교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스카이라운지 등은 만남을 위해 찾는 고객의 마음까지 헤아려준다. 또한 대·중·소 연회실에서는 대규모 연회와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맞춤형 결혼식 서비스를 지향하는 웨딩홀은 환상적인 축제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다. 독특한 테마공간인 스파&리조트, 객실에서 즐기는 여유, 오감만족 외식 음업장,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웨딩까지. 아쿠아펠리스 호텔은 고객의 호기심과 상상력 그 이상의 재미와 낭만이 있다.



창너머 아름다운 광안대교 전경이 보이는 객실내부

100m대형 바디슬라이드 풀

아쿠아펠리스호텔에서 사용하는 지하 816m에서 뽑아 올린 심층염반 해수 그 자체가 38°C의 심해수 온천이며, 오랫동안 숙성되어 이화혼된 물로서 80여종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체액과 유사한 성분으로 몸에 흡수가 빨라 건강에 무척 이롭다고 자랑이다. 심해수 온천을 사용하는 워터파크 시설은 100m의 바디슬라이더와 파도풀, 유수풀, 바데물들이 있으며 수중헬스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수중운동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준다. 이외에도 휘트니스클럽, 요가, 에어로빅룸,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이 있어 종합레저 시설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세미나실	온천 사우나	바디슬라이더풀	골프장	휘트니스 클럽	수영장
2F 스카이 전망대	8~9F 핑실룸	4F 휘트니스 클럽	4F 휘트니스 클럽	8F 노래주점	
19~20F 스카이라운지, 스카이 노래방	7F 아쿠아로빅, 수영장	3F 중연회장, 유홍주점	3F 중연회장, 유홍주점		
10~18F 객실	6F 골프클럽/인도어, 스크린	2F 일식당, 웨딩홀, 대연회장, 소연회장, 모란트	2F 일식당, 웨딩홀, 대연회장, 소연회장, 모란트		
7~9F 워터파크	5F 온천 사우나	1F 프리미엄 생맥주전문점, 커피숍	1F 프리미엄 생맥주전문점, 커피숍		

*프리미엄 생맥주전문점 오픈 이벤트 진행중

김해국제공항과 지하철 및 터미널이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부산/경남개발의 핵심축인 서부산 중심에 위치한 특2급 호텔!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지정호텔 인증 호텔 파라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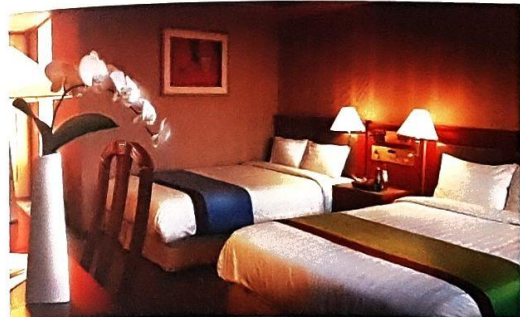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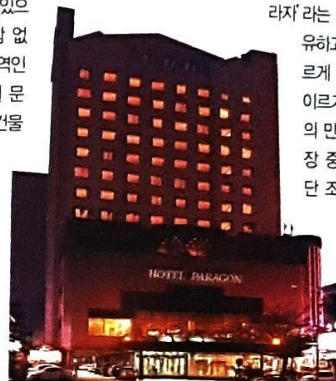


서부산 교통의 중심지 사상에 위치한 호텔파라곤 부산은 1993년 오픈한 이래 명실공히 부산비즈니스의 메카이다. 호텔 파라곤은 김해국제공항과 지하철, 경전철, 터미널이 집약된 편리한 교통과 부산·경남개발의 핵심인 경제자유구역과 신항만, 공단과 함께 우수한 접근성으로 최적의 비즈니스 호텔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업상 및 관광차 방문하는 고객들이 불편함 없으며, 사업상과 여유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인 이 재충전과 활용, 다양한 커넥션을 통해 새로운 호텔 문화를 창출하고자 주력하고 있다. 본관 15층의 건물 중 객실은 5층에서 15층까지 총132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대업장은 1층 커피숍, 2층 로비라운지, 앙식당·뷔페, 3층 대·소 연회장·웨딩프라이자·일식당으로, 4층 사우나(피트니스·라운지)로 운영중이다. '호텔파라곤'은 1993년 부산 사상구 개발등에 오픈한 이래로 명실상부 서부산 유일의 특급 비즈니스 호텔로서 부산 비즈니스활성화에 가교가 되고 있다. 호텔파라곤은 APEC이 있었던 2006년도와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객실 및 연회시설을 개·보수했다. 2012년 1월 다시 한 번 전 객실에 대한 리모델링이 이루어 졌으며, 객실과 공용공

간에 개별 냉·난방시스템 설치 등 호텔 내부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여 투숙객 뿐 아니라 호텔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위한 작은 편의 제공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 덕분에, 호텔파라곤은 장시간 비행과 미팅에 지친 외국인들이 더욱 선호하는 호텔로 손꼽히고 있다. '웨딩프

라지'라는 별도 예약장으로 허가된 웨딩 전용 건물을 소유하고있는 파라곤은 시설, 고객성향,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고 꽃, 장식 음악과 메이크업, 드레스에 이르기 까지 결혼당사자를 위한 맞춤형 준비로 최고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총 5개의 연회장 중 대연회장에서는 동시통역 시설은 물론 최첨단 조명, 음향, 영상 시설을 구비해 놓고 있어 국제 행사, 컨벤션 뿐만 아니라, 결혼식 및 피르연 장소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리뉴얼 오픈한 라모스 뷔페와 함께 최고의 품격과 만족을 드리고자 세련된 인테리어와 여유로운 공간을 구축, 효율적인 시설과 품격의 서비스로 최상의 안락함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호텔파라곤 만의 서비스는 전은 비즈니스 호텔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문의 및 예약 : 호텔파라곤 051-328-2001



釜山の 숙박시설 / Accommodation

특1급 호텔



부산롯데호텔
 ☎ 051810-1000
 www.lottehotelbusan.com
 부산진구 부전동 503-15
 ☎ 총객실 762



파라다이스호텔부산
 ☎ 051742-2121
 www.paradisehotel.co.kr
 해운대구 중동 1408-6
 ☎ 총객실 538



노보텔엠베서더부산
 ☎ 051743-1234
 www.novotelbusan.com
 해운대구 중동 1405-16
 ☎ 총객실 356



호텔홍심
 ☎ 051650-2100
 www.hotelhongshim.com
 해운대구 우천동 137-7
 ☎ 총객실 240



해운대그랜드호텔
 ☎ 051740-1114
 www.grandhotel.co.kr
 해운대구 우동 651-2
 ☎ 총객실 320



부산웨스턴조선호텔
 ☎ 051743-7000
 www.echosunhotel.com
 해운대구 우동 737
 ☎ 총객실 290

특2급 호텔



코모도호텔부산
 ☎ 051466-9101
 www.commodore.co.kr
 중구 영주동 743-80
 ☎ 총객실 314



호텔파라곤
 ☎ 051328-2001~2
 www.hotelparagon.com
 사상구 개평동 564-25
 ☎ 총객실 132



호메르호텔
 ☎ 051750-8000
 www.homershotel.com
 수영구 광인동 193-1
 ☎ 총객실 103



호텔아쿠아팰리스
 ☎ 051756-0202
 www.aquapalace.co.kr
 수영구 광인동 192-5
 ☎ 총객실 70

1급 호텔

호텔명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국제관광호텔	www.hotelukje.com	동구 범일동 830-62	051642-330
부산관광호텔	www.pusanhotel.co.kr	중구 동광동 274-12	051241-4301
파닉스호텔	www.hotelphoenix.net	중구 남포동 574 8-1	051245-8061
미리보호텔		연제구 연산동 1124-25	051866-7400
사우스피서픽		사상구 엄궁동 149-1	051328-9911
부산아리랑관광호텔	www.ariranghotel.co.kr	동구 초량동 1204-1	051463-5001
송정관광호텔	www.songjunghotel.co.kr	해운대구 송정동 297-9	051702-7766
호텔일루아	www.hotelilua.com	해운대구 중동 1509-2	051744-1331
동부산관광호텔	www.dongbusanhotel.com	기정군 기정읍 기룡리 454-3	051727-9991

리조트 · 콘도 · 유스호텔

호텔명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한치리조트	www.hanwharesort.co.kr	해운대구 우1동 1410-3	051749-5500
씨클라우드호텔	www.seacloudhotel.com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287번지	051933-1000
글로리아콘도	www.gloria.co.kr	해운대구 우동 628-5	051746-8181
김강국민호텔	www.김강국민호텔.kr	동래구 온천동 산 1-4	051554-3235
대우월드마크콘도	haeundae.worldmark.co.kr	해운대구 우동 1435-2	051746-9342
필레드마크콘도미니엄	www.piledark.co.kr	해운대구 중1동 1124-2	051746-1010
아르파나유스호텔	www.arpana.co.kr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45	051731-9800

5,6월 외국인 15만명 부산 찾는다

5월 여수엑스포 · 국제모터쇼, 6월 라이온스 세계대회 등

5월 12일 개막한 여수엑스포와 5월 24일 열린 부산국제모터쇼 기간에 14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는다. 6월에는 206개국 1만500여 명의 외국인이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제95차 세계대회에 참석한다. 부산시와 관광업계는 관광객 유치에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여수엑스포 기간 13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김해공항과 부산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수엑스포 기간 전체 외국인 추산 관람객 (30만 명)의 26%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관광특수를 잡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 시는 먼저 지역 내 6곳의 특급호텔을 선정해 여수엑스포 기간 총 9대의 버스를 가동, 여수-부산을 정기 운행할 계획이다. 시 김경덕 해양정책과장은 "현재 하모니 크루즈 선사와 부산-일본 오사카를 운항하는 팬스타크루즈 등과 부산-여수 노선 운항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10월에 예정된 세계해양포럼을 여수엑스포 기간 중으로 앞당기고, 부산항축제 등 지역축제와 연계한 여행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중국인 위한 식당, 맞춤형관광코스개발

부산이 중국인 전용식당을 마련하고, 중저가 공식 숙박업소를 지정한다. 의료관광이나 생태관광 등 중국인을 위한 맞춤형관광코스도 개발한다.

부산시는 한류열풍 등으로 중국인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6)만명 유치를 목표로 민간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는 보고회에서 중국인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입식 테이블로 정비하고, 중국인전용식당 개설하기로 했다. 관광식당 외국어 메뉴판

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고급음식'을 즐기는 관광객 유치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저가 숙박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중국현지 홈페이지나 안내 책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테마 관광자원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을숙도생태공원-낙동강하구탐방체험장을 둘러보는 생태관광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유람선관광 등 중국인이 가고 싶은 곳을 중심으로 코스를 개발하고 상품화한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정부 차원에서 세계적 브랜드로 육성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산국제영화제를 '2012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힘아식을 지난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했다.

지방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브랜드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전국 공모를 거쳐 세계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로 선정돼

올해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에 나서게 됐다. 이밖에 전주한옥마을과 순천향대습지, 경기 DMZ,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등도 시범사업 대상으로 함께 선정됐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브랜드 육성을 위해 △영화촬영지 명소화 △유튜브 채널 개설을 통한 부산브랜드 홍보마케팅 △영화의전당 업그레이드를 위한 미디어 과사드 구축사업 등을 3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관광업계 자격증의 세계

관광업계 각 부문별로도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국가자격증이 다수 운영되고 있다.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도 있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최소성 높은 자격증도 있다. 관광업계 취업시에 자신을 차별화하는 역할을 하는 자격증. 일단 따고 나면 힘이 되고 약이 되는 관광업계 자격증을 소개한다. 관광통역안내사,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외여행인솔자, 호텔업계자격증, 컨벤션기획사,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관광통역안내사 Tourist Guide

관광통역안내사는 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통역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의 가이드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여행업계 내에서의 활용가치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데 외국어, 필기, 면접시험으로 치러진다. 외국어 종류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팔레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등이다. 필기시험은 국사(40%), 관광자원해설(20%),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20%)이며, 면접시험은 응시한 언어로 관광실무상식을 평가한다. 올해 정기시험은 9월 16일(필기), 11월 3~4일(면접시험) 치러진다. 원서 접수 기간은 8월 6일부터 10일까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새롭게 신설된 의료관광분야 국가자격증이다. 2013년부터 도입된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험 일정은 올해 12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의료 및 관광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이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이학 및 실무 능력을 평가해 자격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증의 효용가치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필기시험(보건의료관광행정, 보건의료관광마케팅, 보건의료서비스지원관리, 관광서비스지원관리, 의학용어 및 질환의 이해)과 실기시험(보건의료관광실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어학시험 점수도 필요하다.



국외여행인솔자

TC(Tour Conductor)로 불리는 '국외여행 인솔자'는 말 그대로 해외여행객을 인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출발부터 여행 중, 귀국할 때까지 여행일정을 관리하면서 여행객이 불편없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여행사에 소속되거나 프리랜스 형태로 해외여행 인솔 업무를 수행하는게 일반적이다.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급하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Overseas Tour Escort License)을 소지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방법은 소양교육과 양성교육 두가지가 있다.

소양교육은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국외여행인솔에 필요한 지식과 실무를 가르친다. 교육시간은 15시간 이상 양성교육은 관광관련 중등교육(관광고교 교육과정)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교육 시설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자격증 발급은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에서 담당하고 있다.

호텔업계 자격증

호텔업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격증은 크게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호텔서비스사는 가장 기초적인 자격증으로 호텔종사원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외국어 실력과 법규 및 실무 지식용 평가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필기시험(관광법규, 호텔실무, 외국어)과 면접시험 2단계 과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취업시 호텔서비스사 자격증을 크게 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호텔 관리자 등 호텔 관련 다른 자격취득에 도움을 준다. 호텔관리사는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또는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자 또는 관광 관련 전문대 졸업 이상자가 취득할 수 있다. 호텔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이상의 경력을 채우면 호텔경영사 2급 자격증에 도전할 수 있다. 호텔 경영사 2급자격 취득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호텔경영사 1급 자격증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호텔경영사는 관광호텔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담당자 즉, 지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자격증으로 관광호텔의 계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서접수는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1차시험은 11월 11일 치러진다. 2차 면접시험의 경우 호텔관리사 및 호텔경영사는 12월 8일, 호텔서비스사는 12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컨벤션기획사

2012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한국 컨벤션의 해(2012 Korea Convention Year)'이다.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를 주축으로 한 컨벤션 산업의 중요성과 고부가가치성을 인식하고 발전기만을 다지겠다는 취지다. 컨벤션 기획사는 컨벤션 산업을 이끄는 핵심으로 국제회의 유치, 기획, 준비, 진행 등 제반업무를 조정하고 운영한다. 1급과 2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1급 자격증의 경우 컨벤션 기획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거나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이가 응시할 수 있다. 1급 자격증은 필기시험(컨벤션기획실무론, 재무회계론, 컨벤션마케팅)과 실기시험(컨벤션 실무/컨벤션 기획 및 실무 제안서 작성,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치러진다.



국내여행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의 수입업무는 국내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인정 수입, 여행비용 산출, 숙박시설 예약, 관광지 및 고지시안내 등 여행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행사나 관련업체 등에 취업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국외여행인솔자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안내하고, 관광통역안내사가 외국인의 한국여행을 안내하는 업무라면, 국내여행안내사는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자격증 활용도는 높지 않지만 여전히 국내여행 가이드 활동 등에는 기본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며 국사(30%), 관광자원해설(20%), 관광법규(20%), 관광학개론(30%)의 과목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된다. 10월 8일부터 12월 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1차 필기시험은 11월 11일 2차 면접은 12월 9일 치러진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격증은 필수다.



훌륭한 인재가 있어야 산업이 발전한다.

관광 관련 업체의 인재 양성 현주소

해외 인턴십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라 한국관광공사

관광분야의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외 관광업체에서 실무급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인자라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중이다. 또한 해외 신진 관광업체 실무 경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이바지한다. 주요 업무는 공항 반권 데스크 내반권 및 수하물 발송, 호텔 프린트 데이크 또는 레스토랑 접객, 여행상품 판매 및 개발, 고객 상담 등이다. 업체의 인턴 실습비 외에도 최저 생계비에 준하는 체제비 보조금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으로 사업을 전개했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는 건강대 취업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해외 인턴십 수요를 직접 발굴하고 있다.

실무 경험은 필수 모두투어

모두투어에 입사하려면 여행업에 대한 열정이 필수다. 그리고 '스펙 보다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인재를 선발한다. 이런 인재를 찾기 위해 모두투어에서는 국내 다양한 대학과 연계해 실습생을 뽑는 형태로 인턴십을 진행한다. 그리고 인턴십 경험이 있는 학생이 입사지원 할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편이다. 모두투어의 조직 문화를 다른 학생 보다 더 잘 파악할 것이며 업무 수행능력도 뛰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모두투어 홍보마케팅 김민정은 '모두투어의 경우 전 직원의 80%가 관광 관련 전공자다. 그만큼 관광업에 대한 열정을 중요하게 보는데, 실무 경험이 없는 지원자의 경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끼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고 설명한다. 대학에서 그만큼 실습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SNS를 활용한 인재 채용 하나투어

현재 하나투어는 두 가지 형태의 인턴십을 진행한다. 먼저 기획,관리,마케팅 분야 신입 직원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해 5-6개월 근무 평가 후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는 형식이 있다. 또 전국 관광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 및 인턴을 모집해 방학 2달동안 운영한다. 프로그램 시작후에는 인재를 선발해서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현업에 배치하고 실질적인 실습을 진행한다.

하나투어에는 관광학 전공을 비롯한 다양한 전공자가 많다. 급변하는 세계에 맞추려면 관광학뿐 아니라 인문,사회,경영 관련 지식 습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훌륭한 인재가 채용되기 위해 하나투어는



공개채용시 수동적 채용박람회 형태에서 벗어나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는 적극적 방식을 택한다. 최근 SNS 채널을 오픈, 트위터 등을 통해 지원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자들에게 하나투어를 홍보하는 효과도 누리고 있다.

인턴십 이후에도 질 좋은 교육 대한항공

인턴십은 하계방학 기간중 운영되며 본사 및 주요현장에 배치되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인턴십 종료 후에 참가 학생은 프로젝트 결과, 근무태도, 업무 수행역량 등을 평가 받아 우수한 평가를 받을 경우 하반기 대졸 공개 신입사원 모집시 심사를 거쳐 정직원으로 채용된다.

대한항공은 임직원을 위한 인재 양성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해외 단기 파견양성 프로그램, 임원 경영능력 향상 과정(KEDP), 해외 및 국내 우수대학 MBA 과정 지원, AMIS(Airline Management School) 등 직급별 필수교육 이수체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KEDP는 대한항공이 임원전원을 대상으로 만든 프로그램. 서울대 경영대학과 함께 개발한 맞춤형 MBA 과정으로 상무보급 이상 전 임원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 체계적인 경영이론을 정립하고 미래 경영자의 자질을 갖추는 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재가 훈련시킬 수 있는 사내교육이 여행업계에도 필요하다.



대마도(쓰시마) 부산사무소 소장
히라야마 테쓰마사(平山哲正)

한일교류사 기념비를 생각하며...

일본에서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대마도(쓰시마). 날씨가 맑은 날에는 부산의 태종대, 용두산 공원 전망대에 서도 섬의 실루엣이 보일만큼 무척 가까우며 또 친근한 곳이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1시간이면 닿는 곳. 대마도는 예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중계역할을 했고, 한국과 관계가 깊었다. 역사에 얽힌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아침에 출찍 떠났다가 저녁에 다녀올 수 있는 대마도. 지난 4월에 임명된 대마도 부산 사무소 히라야마 테쓰마사(平山哲正)씨에게 대마도를 무대로 펼쳐졌던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후세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과 대마도가 협력하여 건립한 '한일교류사 기념비'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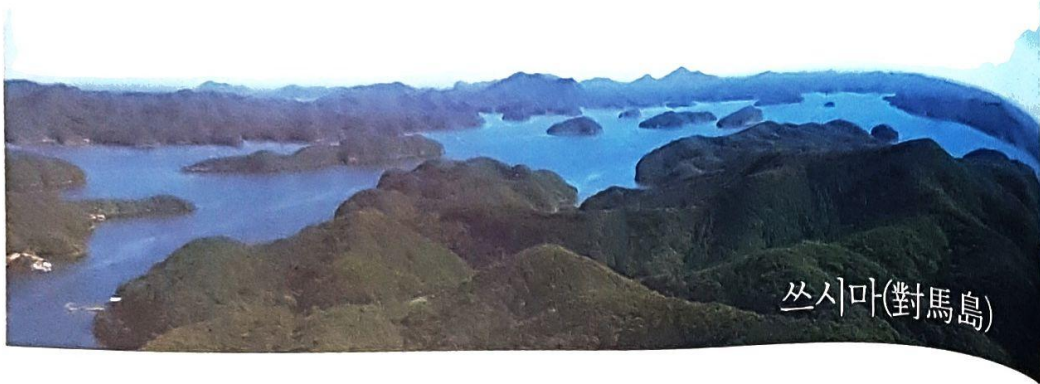
(편집자 주)

쓰시마는 일본 규슈(九州)와 한반도 사이에 위치한 섬입니다. 규슈의 후쿠오카까지 138km인 데 비해, 이웃나라 한국까지는 49.5km에 불과하여 예로부터 대륙과 일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륙의 문화와 문물이 쓰시마를 경유하여 일본 본토로 전해졌습니다. 섬은 남북 82km, 동서 18km로 길쭉하게 생겼으며, 해안선이 복잡하여 총길이가 915km에 달합니다. 중앙부에 있는 아스만은 크고 작은 휴미와 섬들로 이루어진 리아스식 해안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섬이 되기 전에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국가 천연기념물인 쓰시마 아미네코(翁)를 비롯하여 쓰시마에서만 볼 수 있는 대륙계 동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위대한 유학자이며 정치가인 최익현 선생 손국비



쓰시마(對馬島)

쓰시마시와 한국의 교류

2차 대전 이전에 부산에는 쓰시마 사람들이 살기도 했고, 일상적인 쇼핑이나 영화 관람을 하러 가는 등 인적 교류와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예로부터 친근한 이웃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와는 1989년에 자매 섬으로 인연을 맺어, 상호 방문 등 우호친선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1994년에는 행정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다음 해부터 행정 사례를 소개하거나 의견을 교환하는 '행정교류 세미나'를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울주군과는 조선시대의 외교관 '이예(李葵)'를 통한 기념비 등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문화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2005년에 '우호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추모제 개최 협력, 이벤트 상호 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중·고등학교의 자매결연에 의한 교류와 민간 차원에서 문화·스포츠를 통한 교류, 홈페이지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부산-쓰시마 간 국제항로가 개설되어 고속선이 운항된 이후, 현재는 새로운 여객선사가 추가되고 항공편도 개설되어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쓰시마가 무대가 된 한일교류사기념비 - '정신교린'의 배경

2세기 후반에 들어 한국과의 왕래가 재개된 이후, 조선의 예국열사 격인 순국비, 조선통신사의 비 등이 한일교류의 성과의 하나로 세워졌습니다.

1. 대한인 귀익친 선생 순국비 (1986년 8월 31일)

면담 귀익친 선생은 대한제국의 위대한 유학자이며 정치가이다. 어려운 경제 속에 애국항일운동을 일으키다 일본 헌병에 붙잡힌 뒤 쓰시마에 유배되어 순국했다. 순국비가 세워진 슈겐지 길의 장전에는 백제 승 법요사가 관재하고 있다고 전해져 한국과 인연이 깊다. 특히, 선생이 순국한 후에 쓰시마의 유식들이 그 충절을 추모하여 시신을 모셨던

곳이기도 하다. 그 유서 깊은 곳에 선생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칭송하여 순국비를 건립하였다.

2. 조선국 역관사 순난비 (1991년 3월 20일)

1703년 음력 2월 5일 폐정환 아침, 부신항을 출발한 108명의 조선통신사 일행은 저녁 무렵 와니우라에 입항하기 직전에 급변한 악천후에 휘말려 전원이 잠혹하게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양국 간에 영원히 어질 '정신교린'의 이념으로, 순국한 일행의 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112개의 영석으로 비를 세워 오래 현창한다.

3. 조선통신사의 비 (1992년 2월 13일)

조선통신사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일본에 갔다. 그들은 일본과 조선 사이에서 선린우호의 우의를 나누는 국가외교사절이자 문화사절이기도 하였다. 특히, 정사 이하 500명에 이르는 일행의 방문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고, 세련된 학문과 예술, 찬란한 이문화의 향기를 전하였다.

조선통신사의 유형무형의 행적은 현재에도 각지에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이는 근세 일본이 왜국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승관은 다르지만 정신의 마음으로 대등하게 교류했던 이웃나라와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보여준다. 이를 거울삼아 조선통신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 의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한다.

4. 신라사 박제상 공 순국비 (1988년 8월 8일)

동아시아의 격동기였던 5세기 초, 왜국과 신라국은 통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신라는 친선을 위해 대몽양의 아들 미사흔을 왜로 보냈고, 그 후 왕자의 귀환을 요청하며 박제상을 왜에 파견했다. 미사흔과 신라 국사 일행이 돌아오는 길에 쓰시마의 사비노우미노마나토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지역과 용기를 갖춘 박제상이 왕자를 무사히 귀환시키고 자신은 붙잡혀 신라에 돌아가지 못하고 순직했다는 것을 한일 양국의 역사기록에서 볼 수 있다. 박제상의 충절을 기리고 사비노우미노마나토의 사적을 알리기 위하여 순국비를 건립하였다.



한국전망대



덕해옹주 결혼 풍속기념비

5. 조선왕가 소매작가 김혼봉축기념비 (2001년 11월 10일)

1931년 신혼인 소다케유기 공과 덕해옹주가 함께 쓰시마를 방문하여 도민의 일선한 환영을 받았는데, 당시 쓰시마에 살고 있던 한국 사압들이 김혼을 축하하며 이비를 건립하였다. 25년간의 김혼생활은, 많은 곤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딸 정혜와 함께 신뢰와 애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양 민족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고 기센 시대 조류 속에 1955년 이별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되었으며 소다케유기 공은 1985년에, 덕해옹주는 고국에서 1989년에 서거했다.

6. 조선국 역관사 및 정사 순난 영위 (2003년 3월 7일)

1703년 음력 2월 5일 조난으로 순국한 112명의 명단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1991년 112개의 영석(靈石)으로 순난비를 건립하였는데, 나중에 《소(宗)가 문시사료》에서 《도해 역관 및 정사 성명》이라는 문서 책자가 발견되었다. 순난 30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국 역관사 및 정사 순난 영위'를 세기 건립하였다.

7. 조선통신사 이예 공적비 (2005년 11월 21일)

조선 전기, 국가사절로서 14차례 일본에 파견된 이예는 일본 왕복 도중에 쓰시마에 들렀을 뿐만 아니라 정사로서 여러 번 쓰시마를 방문했다. 이예의 공적은 조선인 포로의 반환과 대장경의 전달, 양국의 문화교류에 기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쓰시마의 입장에서 최대 공적은 쓰시마와 조선의 통교구역에 관한 조약체결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이로써 왜구가 잠잠해지고 쓰시마에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왔다. 이예의 인품과 도량에 감동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적을 알리고자 비를 세웠다.

8. 조선국 왕비의 비 (2006년 10월 31일)

가미이카타 지역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어느 장군이 조선의 공주님을 데리고 왔으며, 공주가 죽을 때 모국이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는 말을 남기고 지승길로 떠났다는 전설이 수백 년간 소중히 전해오고 있다. 이 미지의 장면에는 '이연왕비', 즉년에는 '정정18년 갑인년(1613)이 세겨지었다. '이연(李燕)'은 세네대 왕 신조(1568-1608)이다.

9. 백제국 왕인박사 현장비 (2017년 5월 25일)

《고사기》 및 《일본서기》에 따르면, 일본의 초월으로 백제 왕인박사가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와 한자와 학술을 일본에 전하였다. 왕인은 '와니'로도 불리며 오사가 각지에 많은 사적이 있고 규슈의 사가현에는 오사카에 갈 때 경유한 사적이 있는데, 쓰시마의 와니우라는 규슈에 갈 때 경유지였다는 것이 이곳의 자연과 지명에 의해 증명된다. 즉, 와니우라는 학문의 선조인 왕인박사가 일본에 최초로 한문을 전한 학문 전승 지역이다. 양국 문화교류 사상 최초의 역사적 현장에 기념비를 건립하고 왕인박사의 위대한 공적을 영원히 현창하는 바이다.

10. 통신사 황윤길 현장비 (2011년 12월 3일)

16세기 말에 통신사로 일본에 방문한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서장관 허성과 수행원 2백 여 명은 일본의 정세를 탐색하고 귀국하여 상황을 보고하였다. 정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들림없이 침략할 것으로 보고 국방을 강화할 것을 청하였으나, 부사는 일본군이 침략할 리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조정은 부사의 권을 들어 국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후 바다를 뒤덮은 대군이 침략하고 대패 없이 나라의 참상을 겪게 되자, 왕은 황윤길을 그리워하며 깊이 후회했다고 한다.

앞으로의 전망

첫 번째 기념비는 1986년에 슈겐지 길 마당에 세워 대한인 귀익친 선생 순국비였습니다. 그 후 2011년까지 25년간 10개의 기념비가 건립되었으며, 기념비 하나하나에 많은 정성이 깃들었습니다. 쓰시마를 무대로 펼쳐졌던 역사를 왜곡없이 바르게 후세에 전하고 활용함으로써 한일 친선교류의 초석으로 삼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것입니다.

쓰시마시에서는 조선통신사의 정신이기도 한 '정신교린' 서로 속이지 않고 나누지 않으며, 진실로써 교류한다는 기본 이념으로 한국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부산 방문 歡迎, 歡迎!



강희천
부산시 관광진흥과장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해외 관광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에는 약 1억명이 해외를 관광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산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연평균 2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부산을 방문하여 부산을 이해하고, 부산의 매력을 폭 넓게 계속적으로 부산을 찾도록 했으면 한다. 시원한 바다, 유람선이 바다를 유유히 다니고, 밤에는 야경을 즐기고, 여름에는 수백만명이 세계적인 해수욕장인 해운대를 찾고 있다. 해수욕장에는 락페스티벌, 바다축제, 모래축제 등 생동감 있고 젊음과 활력이 넘친다. 이러한 부산의 낭만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흠뻑 취해 갔으면 한다.

부산은 아시아 영화도시의 메카로 키워나가기 위해 조성한 영화의 전당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했으면 한다.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비루프를 밑에서 보면 정말 웅장하다. 영화는 상시 상영되고 있어 관광중 언제든 볼 수 있다. 야간 비루프의 화려한 조명연출은 부산이 아니면 볼 수 없다.

밤에 펼쳐지는 화려한 불꽃축제도 그렇다.

넓은 밤바다를 수놓은 한 폭의 그림은 언제 보아도 장관이다. 음악과 불꽃이 조화를 이루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불꽃이 예술적으로 승화되어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롭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감동을 받을 것이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범어사에서의 하룻밤 산사체험을 하느라 마음 정신이 맑아지고 바쁜 세상이지만 마음의 여유로움이 생길 것이다. 서면 메디칼스트리트에도 외국인 많이 찾고 있다.

부산 관광도 하면서 현대적이고 깔끔한 의료시설에 뛰어난 의료 기술을 손수 체험하고 싶다.

그 외 경제자유구역청,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용궁사, 세계유일의 UN기념공원, 낙조분수대, 이기대 산책로, 갈매기 등등 부산만의 특색있는 관광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정말로 많다.

중국에서 부산을 방문할 경우 대부분인 단체로 오지만 개인적으로도 친구들이나 가족단위로하여 개별적으로 오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부산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 2-3시간이면 오는 가까운 거리이다. 김해공항에 내려 경전철과 지하철을 이용하여 부산역에 도착하여 셔틀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자유롭게 관광하면 더욱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쇼핑도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다. 세계최대의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사후면세점이 200개소나 있으며 은련카드도 2,00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인에 맞추어 식당도 개선해나가고 메뉴판에도 중국어를 병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 부산은 아시아 제 4위의 컨벤션도시로서 국제적인 행사가 많아 호텔 예약이 쉽지 않다. 2017년까지 6천여실을 계획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모텔이나 인근 경주나 창원외 호텔까지 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많은 식당들이 좌식으로 되어 있어 입식 테이블형태의 식당문화에 길들여진 중국인들에게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도 문화경험이라 생각하면 좋겠다. 요사이 한국인들도 입식 테이블형태를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선 바지가 구겨지지 않아서 좋다. 식당을 신선했거나 증개축할 때는 입식테이블 형태로의 개선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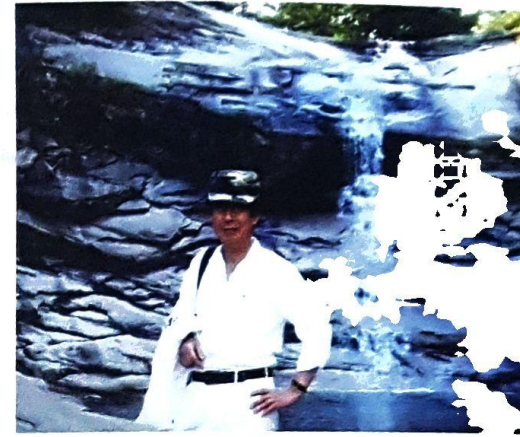
그러나 관광객의 마음을 잡는 것은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 씀씀이라 하겠다. 부산시민 모두가 관광홍보대사가 되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환대 분위기를 조성할 때 부산관광의 미래는 한층 밝아질 것이다.

아! 부산요(釜山窯)

일본 큐슈(九州) 남단 금강만(錦江灣) 언저리의 나에시로가와(苗代川)란 작은 마을에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인 도공(陶工) 심당길로부터 400년을 이어내린 사쓰마야키(薩摩焼)와 이삼평을 도조(陶祖)로 추종해 1916년 기념비를 세우고 그를 기리는 행사를 매년 열고 있는 아리타야키(有田焼)는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도자기로 자리 잡았다.

1995년 부산에 편입된 기장군은 예로부터 도자기 제작이 활발했던 곳으로 옛가마터가 많이 발견되었고 자신의窯(요: 기와나 자기를 굽는 가마를 가지고 작업 중인 곳)만 40여 곳에 이른다. 부산의 도심에서도 도자기를 만들었다. 조선 속의 일본인 마을 초량왜관에서 만들었고 그 이름은 부산요(釜山窯)다. 조선은 원료인 백토와 도공, 목재를 지원해 조선도자기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부산요는 화관다완요(和館茶碗窯) 또는 고혼자완(御本茶碗)이라 불리우며 주문을 의뢰했던 쓰시마(對馬島)에서 조차 단 한 점도 팔지 않고 일본의 최고 권력자들에게 오직 선물용으로만 제작했을 정도로 유명했다.

광복동에 자리 잡은 구미화당 건물 뒤쪽에 주차 빌딩을 짓기 위해 창고를 허물자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석축이 드러났다. 부산요가 있었던 곳이다. 로얄호텔에서부터 고갈비골목의 식당을 사들여 용두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만들고 부산요를 판매하는 카페와 부산요와 함께 초량왜관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을 때 이 땅이야말로 부산의 역사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초량왜관의 시작이요 스토리텔링의 보물창고다 살려야 한다며 매일 간지신문 기자에게 현황을 보여주며 부산시나 중구청이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보도 해달라고 애달랐다. 사유지에 대한 권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기사를 쓰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다. 백만명 공민 만들기 시민모임 때처럼 부산시민이 동참하여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려해보라고 다시 한번 애달리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광복로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예술인들이 머무를 수 있는 장터를 만들어 서울의 인사동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빈번히 광복로상가빈영회의 반대로 부산되었고 이번에도 역시 주차빌딩이 필요하다는 강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한 광복로상가빈영회는 주차



빌딩을 올리겠다는 사업주의 의견에 대부분이 찬성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야기기 있는 곳을 발굴해내고 탄방로를 만들기 위해 나서고 있는 마당에 이 부지를 사들일수 없었던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땅을 치고 통곡해 본들 소용없고 이미 날아가버린 새를 바라보는 꼴이 되었다. 통탄할 일이다.

일본인을 가둬두기 위해 조선정부가 설치한 초량왜관의 살점성을 띤 관수거나 사신을 맞았던 객사라도 만들자며 시작 된 용두산 주변 부지 매입에 대한 괴팍한 절규는 이제 공명불이 되었다. 1950년대 후반 현대적 도시 건설로 베이징(北京) 고성의 성곽과 성문을 철거할 때 당시 청화대(淸華大) 교수였던 양사성(梁思成)은 외국에 정치행정 중심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베이징은 원형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양사성은 파괴된 성벽의 잔해를 끌어안고 땅신들은 50년 후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라며 울부짖었다. 그의 주장은 맞았다. 2018년 울린피를 앞두고 베이징의 옛것을 살리는데 천문축적인 돈이 투자되었다. 느리지만 제대로 된 청사진으로 초량왜관을 복원하자는 뜻있는 학토사학자들의 주장과 언론의 문제제기 역시 이제 소용없음을 사민들은 할 알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長崎)현도 네덜란드 상관 대차야(出島) 복원 부지를 사들이는데 50년의 세월을 보냈다. 역사적 유적은 역사의 현장에 있어야만 한다. 부산 최고의 명품도자기 "부산요"를 재현하고 그 터에 부산요의 역사를 남겨야 한다.

대륙강영행사 대표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 문화유적답사대장
부산초량역역안구회 홍보위원장 장순복

연합과 연계 - 부산과 동남권의 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



주현명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 사무총장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관광시장의 큰 손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성과는 서울의 거리에 북적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지역 특1급 호텔의 객실 이용률이 80.5%, 1급 호텔이 83.9%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도시 중심가 호텔에 말할 것도 없고 다소 중심지에서 떨어진 호텔에까지 1년 내내 빈방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방이 없다'는 즐거운 비명은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부산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비교해 보면 그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 한국 문화관광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중 부산 방문자는 15.0%에 불과하며, 동남권 전체 지역 방문객을 합해도 20%를 넘지 않는다. 이를 77.4%인 서울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지금까지 부산 관광 마케팅 담당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것이다. 문제는 구조적인 것이다. 우선 항공 노선이 서울(인천)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한국어 여행 상품 대부분 서울과 제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관광객을 직접 유치하는 인바운드 여행사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이 외래관광객의 서울 편중을 낳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관광객 유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하다. 특히 서울과의 경쟁을 뚫고 부산의 관광산업을 성장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전략은 정책의 편의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관광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한 이해의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서울과의 경쟁은 다만 국내적인 유치 경쟁이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것이다. 관광시장에서의 경쟁은 일차적으로 관광 매력도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도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연합과 연계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라 여겨진다.

후쿠오카, 쿠마모토, 카고시마 등, 큐슈의 주요도시들이 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 비록해 경남의 주요 관광도시들이 TPO의 회원도시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TPO를 의견 조정과 협력의 틀로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큐슈지역과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연합과 연계 전략의 첫 번째 목표는 동남권 관광지의 연합일 것이다.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은 수도가 가지는 강력한 도시 브랜드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서울의 수많은 관광자원들은 전세계로부터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것이며 장기간 체류해도 다 섭렵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다. 서울이 아니라 부산으로 입국하여 동남권을 관광하게 만들려면, 혹은 서울로 들어온 관광객을 동남권으로 불러 내리려면, 서울에 못지않게 많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 문제를 동남권 지자체의 연합과 상호협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거대도시로서의 부산은 모든 현대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다 갖추고 있다. 첨단 기술력이 돋보이는 교량과 고층빌딩 등의 현대적 건축물이 즐비하며, 공연장과 미술관을 비롯한 많은 문화시설이 접근이 쉬운 시내에 위치해 있고, 다양한 식당, 백화점과 쇼핑센터, 시내 면세점, 관광호텔 등 관광객들을 만족시키기엔 충분한 수준의 관광 편의시설들이 들어선 있다. 울산은 산업관광 자원이 풍부하다. 울산의 온산이나 방어진에 들어선 거대한 산업단지가 내뿜는 위용은 개발도상국들의 관광객을 매료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경남은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배경으로 역사유적들이 도처에 널려 있으며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이것들이 하나의 브랜드 아래서 서로 연계된 관광지로 정리되고 관리 된다면 국제 관광 시장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못지않은 새로운 관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동남권의 세 지자체가 관광산업 육성정책에 있어서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합적 행정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지자체간의 협력에 의해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분담해서 실행해 가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필요한 것은 무망비 상태의 현실에 대한 절실한 인식이며 관광산업이 이 지역에 가져다줄 큰 결실에 대한 비전의 공유이다.

둘째로 꼽을 수 있는 전략적 목표는 동남권 관광과 일본 큐슈지역 관광의 연계이다. 2011 외래관광객실태조사에 의하면 중국인들의 여행진 방문 검토 국가 중 선호도 1위는 일본 (70.5%)이며, 그 뒤를 태국(16.8%), 싱가포르(10.7%), 말레이시아(6.6%)가 잇고 있다. 한국은 19위권 밖이다. 중국인들에게 관광 선호도가 가장 높은 일본 지역 관광을 지명도가 낮은 동남권 관광과 묶어서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한다면 동남권 관광 상품의 매력은 크게 상승하게 될 것이고, 동남권 관광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다.

큐슈 관광과의 연계를 위한 조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항공편에 비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박편이 매일 부산과 후쿠오카, 그리고 부산과 시모노세키 사이에 운항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는 큐슈 관광을 잘 알고 있고, 큐슈의 여행사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여행사들이 다수 있다. 중국인들의 한국여행이 주로 6월이나 7월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동남권과 큐슈를 연계하는 일정은 여기에 충분하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빛나는 기회를 쫓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를 지역협력의 매개로 삼는다면 이것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후쿠오카, 쿠마모토, 카고시마 등, 큐슈의 주요도시들이 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 비록해 경남의 주요 관광도시들이 TPO의 회원도시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TPO를 의견 조정과 협력의 틀로 활용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큐슈지역과 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일이든 사회적 일이든 연합과 연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인접한 지자체들끼리의 경계와 경쟁은 다른 먼 지역과의 그것보다도 더 치열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연합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할 만큼 절실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동남권 연합과 큐슈권 연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많은 문제들을 이 짧은 글에서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는 불가능하지 않으니 기운을 내라고 말하고 싶다. 부산·동남권·일본 큐슈 관광은 국제 관광 시장에서 서울·제주 관광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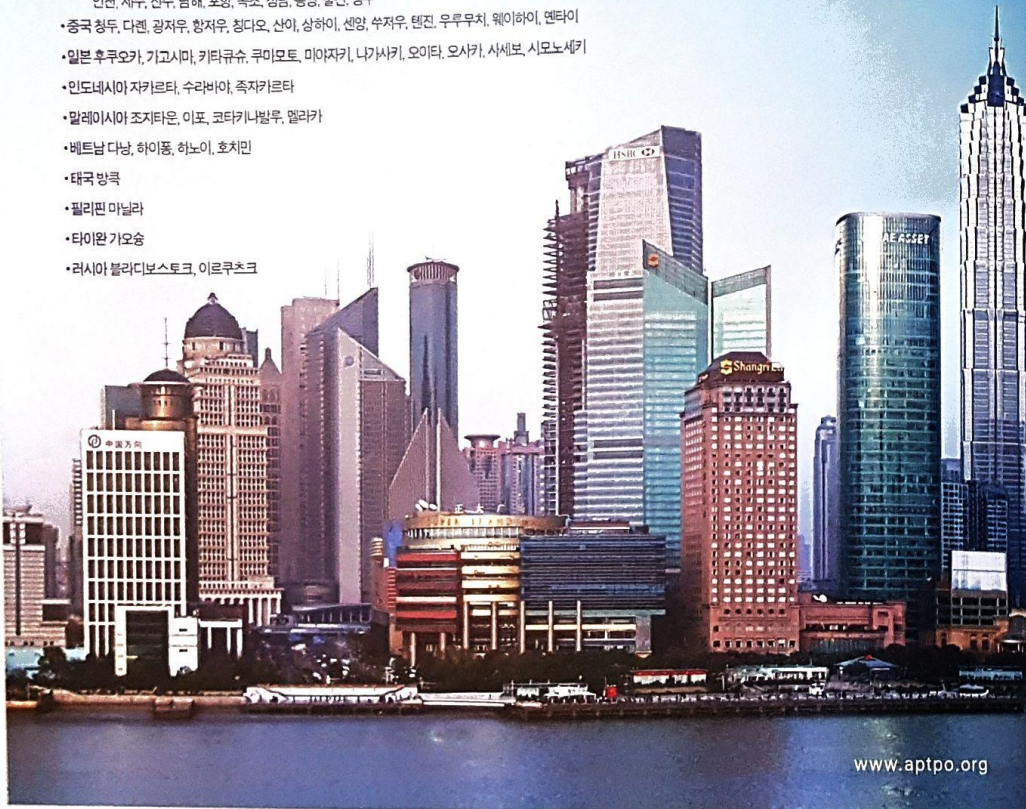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인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청진,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칭두, 다롄,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이, 상하이, 선양, 우저우, 톈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기고시마, 키타큐슈, 쿠미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이타,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www.aptpo.org

H · O · T · E · L · A · Q · U · A · P · A · L · A · C · E
www.aquapalace.co.kr



국내최초 사계절 비치워터파크 온천호텔

「호텔아쿠아펠리스」

창사 5주년

「호텔아쿠아펠리스」는 국내최초 사계절 비치워터파크 온천호텔로 38℃ 천연 암반 심해온천수가 사용된 워터 테마파크입니다.



- 21F 스카이 전망대
- 19~20F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노래방
- 10~18F 객실
- 7~9F 워터파크
- 8~9F 찜질룸
- 7F 아쿠아로빅, 수영장
- 6F 골프클럽/인도어, 스크린
- 5F 온천 사우나
- 4F 휘트니스 클럽
- 3F 중연회장, 유희주점
- 2F 일식당, 웨딩홀, 대연회장, 소연회장, 프론트
- 1F 프리미엄 생맥주전문점, 커피숍
- B1 노래주점
- * 프리미엄 생맥주 전문점 오픈 이벤트 진행중

낭만이 깃든 초록빛 내음 가득한 그곳에
「호텔아쿠아펠리스」가 있습니다.



HOTEL AQUA PALACE

호텔아쿠아펠리스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2동 192-5 T. 051756-0202 F. 051790-2366



여행사 신뢰의 첫걸음 여행공제회로부터 시작합니다!

- **공제지급보증** 항공, 철도, 여행도매업자, 선박 등 여행업관련 주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채무를 이행보증합니다.
- **공제영업보증** 영업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하면 법령에 의거 등록이 취소됩니다.
- **공제계약보증** 여행계약에서 정한 계약사항을 이행보증합니다.
- **공제회 협력업체**

여행도매업자 :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세종투어몰여행, 자유투어, 레드캠프투어, 오케이캐슈백서비스(주)투어비스, 노랑풍선, 투어이친, 맥여행사, 한진관광, 포커스투어, 하나유스, 걸리버트래블어소시에이트, 신한투어 등

항 공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철 도 : 한국철도공사

선 박 : 씨월드고속훼리, 한일고속, 대아고속해운, 위동해운, 큐슈여객철도, 한국고속해운, 크루즈홀리데이코리아 등

금강산·개성 : 현대아산

공제회는 여행사 전담 보증기관으로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서를 발급해드립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대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82

대전 042)226-8413

충북 043)231-5563

제주 064)742-8861

부산 051)463-3111

울산 052)275-2412

충남 042)254-5465

KATA 02)752-8692

대구 053)746-6407

경기 031)255-8424

전북 063)287-6292

인천 032)432-4590

강원 033)242-0089

전남 061)285-0833

광주 062)224-4486

경남 055)212-1345~6

경북 054)745-0750